2001 학생생활일꾼 여름연수

전국고등학교연합

2001 학생생활일꾼 여름연수

전국고직원노동조합 학생청소년위원회,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150-982)
02-675-6181~3 http://www.eduhope.net/~class
일시: 8월 10일(금)~11일(토)
장소: 충북 영동 마니산 수련원(043-744-3211~6)

2001 학생생활일꾼 여름연수

전국고직원노동조합 학생청소년위원회,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150-982)
02-675-6181~3 http://www.eduhope.net/~class

일시: 8월 10일(금)~11일(토)
장소: 충북 영동 마니산 수련원(043-744-3211~6)

연 수 일 정

8월 10일(금)

1:00~2:00 접수 . 소개

2:00~3:30 **현시기 학생생활운동의 방향**

발제 1 : 정세와 학생생활영역운동의 중요성 (교실사회학연구모임)

발제 2 : 학생청소년사업과 조직화방안 (학생청소년위원회)

발제 3 : 광주지역사례 (광주참실위원회)

3:30~6:00 지역에서 학생생활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분임토의)

6:00~7:00 식사

7:00~8:00 휴식

8:00~10:00 **학생생활영역의 소모임운영상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4개의 소모임 (서울, 대전, 광주, 익산) 각각 15분 발제 15분 질의응답

10:00~ 뒷풀이

8월 11일(토)

8:00~9:00 식사

10:00~12:00 **교사의 존재론-지역교사론과 학교교사론**

지역교사론: 이상헌, 학교교사론: 정진규 (발제 및 전체토론)

12:00~오후 1:00 식사

1:00~ 마침식

글 순 서

하반기 학생생활운동을 위한 제언 이문석 7

2001년 학생청소년위원회 사업계획 김경욱 16

학생청소년위원회를 생각하며 · 광주 아담꿈 생각 김록성 34

빛고을에 아담꿈이라는 모임이 있다네 아담꿈 42

대전 학생생활연구회 '넝쿨' 상반기 모임 내용 및 평가 61

'가온샘', 익산교사학급운영 동아리 64

학급운영모임 운영의 어려움 66

교사론;'말단관리'에서 '지역의 교사'로 거듭나기 배이상헌 69

함께 읽는 시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곽재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날은 올 수 있을까
미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채
그리워진 서로의 마음 위에
물먹은 풀꽃 한 송이
방싯 꽃아줄 수 있을 까
칡꽃이 지는 섬진강 어디거나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한강변 어디거나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모래알이 아름다워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 땅위에
사랑의 입술을 찍을 날들은
햇살을 햇살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희망이라고 속삭이며
마음의 정겨움도 무시로 나누어
다시 사랑의 언어로 서로의 가슴에 뜬
무지개 꽃무지를 볼 수 있을까
미쟁이 토수 배관공 약장수
간호원 선생님 회사원 박사 안내양
술꾼 의사 토끼 나팔꽃 지명수배자의 아내
창녀 포졸 대통령이 함께 뽀뽀를 하며
서로 삿대질을 하며
야 임마 너 너무 아름다워
너 너무 사랑스러워 박치기를 하며
한 송이의 꽃으로 무지개로 피어날 수 있을까.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반기 학생생활운동을 위한 제언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정책국장
이 문 석 · 경기 능곡고

1. 학생생활운동

하반기 우리의 교육을 학생생활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생생활운동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운동의 정의와 목표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학생생활운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수준의, 구조적인 수준의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운동이다. 작게는 학생의 자아탐구를 위한 상담에서부터 크게는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 서고,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를 배워나가는 학생자치의 영역까지를 포괄한다. 즉 학생생활운동은 학생이 학교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고민하는 교육운동이다.

그 동안 학생생활운동은,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급운영 및 학교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급자치 및 학교자치의 실현도 공동체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생생활운동은 저변을 크게 확대하고 있지 못하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얽매어 있는 상태다. 결국 관심있는 소모임을 통한 실천과 학생청소년위원회를 통한 조직적 실천이 현장에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발휘되는 한계가 있다. 학생생활운동을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세분화된 영역을 되새기고 목표를 새롭게 해, 왜 정세 속에서 학생생활운동을 해야 하는가 필요성을 공유해야 한다.

학생생활운동의 영역을 세분화해 보면

가. 학생 개인 또는 집단과의 내면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의 정신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상담 활동

나.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급운영

다. 학생들의 학교내외에서의 문제를 지도하는 학생생활지도

라. 학생 인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운동

마. 학생회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일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학생자치활동

바.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사회적인 문화의 주체로 세우고자하는 학생청소년문화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학생생활운동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사회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떤 삶을 가치있는 삶으로 여기는가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학교사회의 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책임과 권한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속의 기계적인 부속품이 아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삶의 주체로 서는 과정을 통해 사회와 개인이 모순되지 않는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등한 '관계'로서 학생-교사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2. 하반기 교육정세

5.31 교육개혁안(이하 교육안) 발표 이후 차근차근 진행되던 교육안의 내용은 2002년 고교 7차교육과정 도입과 교직발전종합대책안, 학교다양화, 권한 이양(책임 이양) 프로그램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학교는 그 사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초등의 열린교육 도입으로 벽없는 학교, 넓은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7차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부진학생들의 보충수업이 초등학교에까지 확장되었으며, 획일적인 열린교육의 도입이 초래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중등에서 7차교육과정의 도입은 단계형 교육과정의 도입과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이 문제되고 있다. 교과중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교사의 수급문제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상담, 학급운영의 공백을 메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학생회

기초단위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던 탓에 학생회 운영 및 구성에도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가뜩이나 성적중심의 서열화, 대중문화의 무차별 공세 속에 개인화·파편화되고 있는 아이들은 수준별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선택이라는 이름 속에 학교, 대학, 교육청, 국가의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수준과 선택에 의해 분리된 아이들은 대학입시를 향한 수준별 경쟁 10년 + 선택형 경쟁 2년을 버텨내야 한다. 획일의 반대를 획일적 열림과 분리에서 찾은 해법은 결국 아이들을 지식의 피전달자로 유지하면서 학교를 경쟁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교육주체의 측면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육안에 의한 개혁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사분 오열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획일적인 공교육이 모든 교육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된 터에 획일을 반대하고 이루어지는 개혁은 '좋은 것'이라는 심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획일적이 되었는가에 있으나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

교사 중 일부는 교과중심 체제로 학교교육체제가 재편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 설정이 학생들과 접촉하는 활동보다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선택형 교육과정과 재량활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좀 더 적은 교과, 좀 더 적은 수업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이다. 학부모 또한 선택형 교육과정과 재량활동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근거하기보다는, 현재의 획일을 지양하기 위한 대안으로 7차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찬성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경쟁시키는 것이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양성, 임용, 연수제도의 개선 등의 구조적 대안보다 먼저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가 사회 곳곳에 침투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바로 학생들의 공동체 조직의 약화 - 학급 해체 -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학급해체는 곧 기초단위의 상실로 인해 제대로 서보지도 못한 학생 자치 조직의 해체로 나타날 것이다. - 대학의 학부제를 떠올리면 그만이다. -

그동안 우리의 학교는 획일적 교육의 병폐 속에서도 학급이라는 학생생활단위의 존재가 학습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기능해 왔다. 또한 열악한 환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사-학생간의 부분적인 연대가 학급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서구형 교과중심 교육과정체제는 학생을 학급 공동체속의 개인이 아닌 완전한 개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 상당부분 수정된 현재의 상태에서 - 7차교육과정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지향점은 명확하다.

3. 학생생활운동의 필요

올해 하반기는 학급중심 학교체제가 교과중심 학교체제로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 내년 고등학교에 적용되면 초·중·고의 모든 학교가 7차교육과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7차교육과정의 모든 초·중·고에 대한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학습조직의 서열화된 그룹화가 교육의 적당한 방법이며, 직업 및 진학 직전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의 지식 전수가 학생들의 경제적 전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식 전수가 학생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학교사회의 교육적 효과보다 큼을 인정하는 것이고, 학교사회의 한 주체인 학생을 지식의 수요자로 전락시켜 과거 지식의 피전달자로 국한했던 학생을 다시 대상화된 소비의 주체로 변환하는 것이다.

지식중심의 학교교육체제가 낳은 여러 병폐를 되돌아 보지 않고, 학생 개인의 인성, 가치관의 형성을 교과중심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상담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는 이러한 개혁은 학생을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한 구성요소로 바라보는 - 좀 더 정확히 말해 한 부속품으로 바라보는 - 인력개발론의 관점을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학생생활운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인성과 가치관이 학교공동체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며,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자 사회를 개혁해 가는 당당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교과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수는 이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생활운동의 초점은 그들의 문화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학생의 사회적 인지수준을 재단하기에 앞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스스로 자아를 탐구하고 이를 공동체 속에서 소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학생들에게 터질 수 있다. 거꾸로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급운영, 학교활동에서의 교사-학생간의 동등한 '관계'에서의 연대, 학교에서의 학생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과중심학교체제로의 재편은 7차교육과정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체제의 위기 담론은 왜 학교가 지식전수의 장으로서 실용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그 관심이 있다. 낙후된 시설, 관료체제에 의해 운용되는 비효율적인 교육기구들, 획일화된 교육내용과 체제 등 많은 것이 구체적인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대안은 경쟁과 책임, 다양성을 내세우며 오로지 개인과 개별학교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어느새 국가의 책임과 공교육체제의 공공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학교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인가?' 에 대한 관점을 변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현 시기는 공교육의 위기라기 보다 근대적 공교육의 위기이다. 반면에 미래의 공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건설기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우리 공교육의 몇 가지 병폐를 치유

하고 선진국의 또 다른 근대적 공교육의 모델로 따라가자고 하거나 공교육의 무용론을 외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학생생활운동은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소가 아니며 인력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운동이다. 하반기 교육 안에 의한 공교육개혁의 완성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학생생활운동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이 참교육운동인가를 되새겨야 할 때가 지금이기 때문이다.

4. 학생생활운동의 방향

90년대 후반 이후로 개혁의 헤게모니를 교육운동세력이 아닌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교육안은 그 전환점을 구성한 대표적인 정책안이다. 개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조직하였음에도 전교조의 투쟁은 협소한 목소리로 국한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목소리[1]를 경청해 보면 전교조가 교육운동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함을 금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교조의 활동 전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헤게모니를 빼앗긴 상태에서 전교조의 정당한 목소리는 교사이기주의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헤게모니를 되찾아오지 못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의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더 정확한 상황인식을 할 수 있다. 2001년 교육비평 여름호의 대담에서 학부모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실렸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참석자는 '저는 앞으로도 학부모운동과 교사운동은 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교사들은 집단이기주의 쪽으로 흘러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봐요. 대다수 교사들이 이익 추구 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교사운동은 그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럴 때 그걸 견제해

1) 학부모가 본 7차교육과정. 『'7차교육과정 어떻게 수정고시 되어야 하는가' 토론회 자료집』 중. 김정금. 2001.
위 글에 따르면 학부모가 본 7차교육과정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반대와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다른 입장이 그것이다. 글쓴이의 주장대로 교사 노동시장의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교육과정이라는 논의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보면 7차교육과정은 항목과 요소별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맥락이 무시되면 동전의 양면과 같고 백지 한장 차이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학부모 조직 대표의 글과 얼마 전 월간 '우리교육'에서 본 정부관료의 글이 흡사함은 헤게모니를 논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내는 게 학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죠. 집단 이기주의로 말하자면, 저는 학부모의 이기주의보다는 교사의 이기주의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 점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자기 집단 이기주의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교사운동이 교사의 권익옹호 운동화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학부모운동의 주체들에게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다. 왜 이런 인식이 만연하는가? 이는 더 이상 전교조 조합원이 특별히 열의있는 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의 인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각 학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좀 더 학생들과의 관계중심적인 학급운영을 계획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부모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인 한계, 이데올로기적 한계도 존재하지만 주체로서 그들을 세우는 과정이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학부모운동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며, 학부모운동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학생회활동 또한 학생들의 내면화된 비 주체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내에서 학부모·학생의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무작정 학부모·학생의 자주적 조직구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제목소리를 내는 구조를 구축해야만 교사운동의 방향이 대중적인 목소리를 얻을 수 있고, 성과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을 교사운동의 주체들이 먼저 체화해야 한다.

전교조내의 학생생활운동은 그간 학생생활국의 사업내용이거나 개별 연구모임의 실천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학생생활운동 주체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사안중심의 투쟁에 초점을 맞춘 전교조 중앙의 운동과 교과운동을 참교육실천운동의 전부 혹은 중심으로 상정하고 있는 참교육실천운동의 협소한 시각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고, 수업을 잘하는 것은 지식의 전수가 교육의 충분조건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전망과 가치를 실현하고,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학교공동체의 구축에 교사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학생들도 학부모도 교사운동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를 위해 학생생활운동은 교사운동내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1) 학생생활운동의 외연 확대

하반기 학급운영중심의 학생생활운동은 위기 상황에 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 체제가 도입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간 학생생활운동이 앞에서 이야기한 학생생활운동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나가지 못했기에 그 위기상황은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생활운동의 주체들은 외연을 확대해 가야 한다. 본부의 학생청소년위원회를 필두로 지부·지회의 참교육실천사업을 학생생활운동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개인의 실천을 모으고, 강좌를 개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부·지부·지회를 잇는 또는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학생생활운동을 중심과제로 추진해가야 한다.

일·숙직 폐지, 분회 건설 투쟁, 이전비 지급 등 교사의 권익과 관련된 활동으로 기초단위인 분회활동의 실천이 매몰되면 7차교육과정 투쟁등에서 나타나듯 본부와 분회가 따로 놀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참교육실천은 개인의 학급운영 실천이나 상담, 교과지도 실천이 될 수 밖에 없다. 참교육실천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전교조의 운동성이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학생생활운동은 일상적인 운동이다. 전교조 각 단위의 관점을 변화시켜 학생생활운동이 참교육 실천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2) 학교에 뿌리내리는 학생생활운동

《즐거운 학교》의 '교중어락'을 비롯해 학급운영을 나누는 모임이 인터넷에도 여럿 등장하고 있고, 《우리교육》의 시리즈물로 '빛깔이 있는 학급운영'이 나올 정도로 학급운영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도 학급운영모임을 전교조 분회의 일상모임으로 조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학급운영이 하나의 이벤트나 사업처럼 실천되고 있는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부·지회 단위에서 분회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갖는 학급운영모임 활동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별교사들의 이동에 따라 모임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인물중심의 운동으로 학급운영 모임이 존재하기에 학교구조를 바꾸거나 학생생활운동의 관점이 녹아들어가기보다는 일회성에 그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담·학급운영 공동실천·학생청소년 문화체험·자치를 지향하는 학교학생회 건설운동 등 교사들의 관점 혁신에서부터 학생자치 실현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는 학생생활운동을 지부·지회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학교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학생생활운동은 다시 소실천에 그칠 수밖에 없다.

3) 학생·학부모와의 연대

학생과 학부모의 조직화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학생회가 제대로 서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주체화가 지협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학부모들도 학부모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지역에 학부모운동 조직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은 학부모와 학생을 계속 주변부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객체로 만들어 간다.

수요자(소비자) 주권론이 힘을 얻는 것은 교육주체로 학생·학부모가 바로 서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수요자 주권론, 수요자 중심 교육은 교육의 주체를 교육상품의 객체로 대상화

시켜 화폐를 매개로 판매-소비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교육을 탈바꿈시켰다. 한때 교육의 수혜자라고 학부모·학생을 권한없는 객체로 만들었던 자들이 이제 투자한 만큼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삼모사식 사기를 통해 또 한번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교사운동 뿐만 아니라 교육운동 전체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의사시장화 하는 공교육의 장은 경쟁하는 시장경제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몇 개의 구호와 이론적 탐구로 가능하지 않다. 지회 단위까지 학생회 연계망 및 학부모 연대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연대사업의 틀로 학생·학부모와의 연대를 고민하게 되면 교사운동의 지원 체제로 사고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학생생활운동의 차원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주체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2)]

학생청소년 문화사업, 학생회 건설 및 학생회간 연대운동, 지역별 학교 현안에 대한 공동공청회등의 사업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학생·학부모는 교사운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체로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회의하는 주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 학생연합(준)의 제안을 곱씹어 보면 교사운동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두발제한철폐운동을 하기 바로전 「학생생활과 학급운영」에 제안한 학생연합(준)의 전교조에 대한 부탁은 실제로 어영부영, 유야무야되었다. 학생들이 국면을 조성하였는데도 교사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학생생활에 대한 관점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었고, 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학생과 학부모가 제한된 권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이 학교에 직접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바로 시장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교육주체가 할 일이다.

4) 지역연구회의 건설

광주나 서울의 사례처럼 연수를 통해 지역 연구회의 양적·질적 재생산을 일구어야 한다. 연구회의 연구과제와 학생생활운동의 과제가 한 길을 갈 때, 현학적인 연구를 떠나 실천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의 학생생활운동 일꾼을 발굴해 가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아직 학생생활운동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사정에 맡겨지는 일꾼이 아니라 생산된 일꾼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연구회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연구회가 없는 지역에서도 연수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부·지회의 일꾼은 연수를 계획하고, 연구회는

2)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학생·학부모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교사운동이 할 일이다. 그리고 꾸준히 대화하라. 될 수 있는 한 지역적인 관계를 맺어 관심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풀을 형성해 주는 형태로 연수를 계획한다면 연구회의 역량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경쟁, 다양화, 효율화를 외치는 이 유령은 경쟁이 과연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을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이라고 외치는 것인지, 효율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없이 단어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근거해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교육주체가 당당히 교육주체로 서는 과정없이 사안중심으로만 투쟁하거나 좀 더 잘 가르치자는 관점으로만 현장에 서게 되면 의사시장화와 이를 추구하는 개혁의 발목에 잡힐 수밖에 없다. 하반기를 슬기롭게 헤쳐가는 길은 학교에 만연한 거의 모든 주체들의 소외를 거둬내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 중심에 학생생활운동이 설자리는 명확하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제자리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학교의 소외는 사회의 소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2001년 학생청소년위원회 사업 계획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경욱 · 서울 단대부고

1. 2001년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중점과제: 조직화

· 학생청소년위원회의 각 분과는 독립하여 분과원과 분과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학급운영분과장: 성인숙, 학생자치분과장: 이경재, 생활지도분과장: 홍정의, 청소년인권분과장: 이철호, 청소년문화분과장: 이장우).

· 지부도 가능하다면 그런 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지부의 담당자의 적절성과 지속성, 사업의 연속성 유지하기

· 각 분과조직하기: 각 분과별로 토론회를 조직하고 그를 계기로 하여 분과를 조직한다.

· 분과(모임)회의의 독립과 탄력적 운영을 지향한다: 분과모임을 조직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는 연구모임이 분과모임을 대신할 수도 있다.

2. 3대 주력사업

(1) 홈페이지활성화 하기:

우리 분회, 우리 지회, 우리 지부, 학생자치분과, 생활지도분과, 학급운영분과, 청소년인권

분과, 청소년문화분과, [학생생활과 학급운영]

(2)참실보고대회의 성공적 시행

<지부, 지회에서 할 일>

참실보고대회성과를 학생생활국의 조직강화로 이어간다.

· 지회학생부장을 세우고,지부별로 분과별 자문위원을 세워 참실대회에 대비한다.

· 장기적으로는 각 분과별로 전국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 지역발표예상자를 선정한다.-> 홈페이지와 대숲구독을 통하여 연구에 대한 자신감과 안내를 받도록 한다. 연구 독려와 활성화.

· 지역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연구회,연구모임을 만든다.

· 지부는 학생청소년위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부의 역점사업도 조직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지역별로 자문위원이나 활동가들을 파악하여 상호연결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특히 홈페이지상에서)

<지부대회>

· 초등지회는 2,사립지회나 공립중등지회는 중,고 각 1개, 연합지회에서는 초등 1, 중등에서 1개를 출품하도록 한다.

· 초등소분과, 중등소분과를 나누어 진행한다.

<본대회상 그리기>

1. 다함께 하기: 학생청소년분과의 사업설명과 문제제기식

· 공동체교육론(담당: 학생청소년위원회 정책국장)

2. 소분과별 진행(초,중,고 3분과와 연구회 1분과)

· 소분과별로 분과별 사업이나 주제발제와 참실보고대회에 대한 평가,작품선정과정 등을 평가하는 보고회를 갖는다.

*초등은 하나로 하고, 중등은 몇 가지로 세분화할 수도 있음

3. 조총련계, 북한 학교에서는 학생자치, 생활지도, 학급담임을 어떻게 하는가? 슬라이드나 기록물을 상영한다.(담당:교실사회학팀)

4. 분과별 주제잡기

5. 전체 뒷풀이

(3) 참교육실현을 위한 교사,학생, 학부모 연대회의를 지역마다 꾸리기

참교육실현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연대회의(준):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서울지부로 교사,학생,학부모 연대회의를 세움

· 우선 서울지역의 학생의 날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한다.

->전국적으로는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연대회의를 발전시켜 나갈 준비를 한다. 지역별 연대회의의 역할과 과제,연대대상은 다를 수 있다.

3. 영역별 사업

(1)학생자치분과 :

· 참교육실현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연대회의(준) 산하에 사업단(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 등 학교운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모임)을 만든다.

· 2002년 2학기부터 법개정의 운동을 시작한다(즉 2년 정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학생회문제점을 분석 공론화하는 것과 전교조내에서 학생자치에 관한 모범사례를 힘있게 전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 등 학교운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모임

☞모임을 아래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위모임(실무팀)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1.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 참여 사업 추진

· 학생자치 모범 사례 모으기

·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의 논거 글 모으기(학생 주장 글 등)

· 학생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에 대한 논의

·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과 교육법(시행령 등)에 대한 분석 · 연구

▣일정-법제화 실무팀의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격주 진행되는 전체모임에서 검토

: 손순희, 현원일

2. 설문조사 사업

· 학생회 법제화와 학운위 참여 등을 위해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학생자치에 대한 의식과 문제점들을 조사 · 분석한다.

· 학생자치 출판 사업과의 관련성 :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집에 싣는다.

▣일정-실무팀의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격주 진행되는 전체모임에서 검토

-실무팀에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다.

: 최진영, 김정욱

3. 학생자치 자료집 출판 사업

·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자치활동 자료를 모아 편집 출판한다.<기존의 자료 모음 검토 후 추가 사항(설문조사 결과 등) 등을 논의>

▣일정-실무팀의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격주 진행되는 전체모임에서 검토

-실무팀에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다.

(2) 학급운영분과

가. 학급운영 연수 개선

· 기존연수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 광주와 함께 논의한다: 먼저 광주에서 연수 모델을 만들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연수 내용을 모아서 광주로 보낸다.

· 방학 전까지 모든 자료를 모아서 분석 정리한다.

· 연수방법론: 각 주제나 강사에 따라 연수 방법을 달리한다.

나.지회,학교모임에 자료제공: 올해 중점과제

· 모든 자료집에서 토론주제나 토론되었던 내용을 모은다.

· 모임의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 우선 각 모임별로 토론된 것과 이용한 자료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은다.

· 올해 말까지 작업하여 자료집을 낸다.

다. 학급문집운동: 학급운영분과의 도움을 받는다.

(3) 생활지도분과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사회에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많은 이들의 치열한 삶의 결과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과 그것에 걸맞는 학교 운영 체계의 변화의 방향이다. 또 하나는 삶의 질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생활지도분과 계획서

가. 생활지도모임 운영 계획

· 올해는 주로 주체를 세워내는데 주력한다.

가) 본부 운영 모임

· 생활지도분과장 및 2-3명이 전체적인 운영을 기획하고 각 지부나 지회 차원의 생활지도모임의 밑그림을 작성한다.

- 생활지도의 총론적, 각론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 참실보고대회에서 모범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나) 지부나 지회 차원의 생활지도연구모임

- 현재 생활지도연구모임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북부와 서울 북부를 상정하고 있으며, 두 지역은 생활지도분과장이 직접 모임을 추진하며 지역 주체를 세워낸다.
- 두 지역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생활지도연구모임에서 연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년중에 토론회 혹은, 세미나를 추진한다.
- 생활지도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아직 생활지도 영역을 담당할 주체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 지부나 지회 차원의 주체를 세워내는데 주력한다.

나. 참실보고대회 준비 계획

- 참실보고대회에서 생활지도 영역을 하나의 분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본부 운영 모임이 생활지도 영역을 독자적으로 준비한다.
  - 참실보고대회에서 생활지도 영역을 분리하여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모범적인 활동이나 사업을 발굴한다.
  - 올해는 지부나 지회의 참실 준비 주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 세워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4) 청소년문화분과

가. 올해의 주요사업: 청소년신문발간

서울 지역의 <희망>과 인천 지역의 <내일>과 같이 연계하여 11월 학생의 날에 전교조 신문에 특집란 기사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형식으로 시작할 것을 고려 중이다.

- 그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계획과 전망을 세워나가야 한다.

나. 기타:청소년문화정책과 관련된 연대회의

(5) 청소년인권분과

가. 올해의 주요사업: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의 연대사업

(이 모임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임의 이름이 '청소년폭력에 반대하는 네티즌 연합'입니다.)

가) 정기모임 : 매주 화요일 성동희망나눔에서 진행됩니다.

- 각 사안별 투쟁 진행상황 보고 및 투쟁 계획 수립
- 모임의 운영 방향
- 교선 및 정책을 담당할 것을 제의 받았으나 고려중임

나) 인권교실

- 격주 토요일에 청네련과 피해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실 진행
- 과정은 3주 프로그램이고, 1기 과정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1. 인권의 개념 및 내용
2. 인권운동의 역사와 현재, 인권관련 문헌 및 규약
3. 학생 및 청소년의 인권

다) 기타

- 학가협, 청네련, 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수련회
  8월 10 ~ 12일. 홍천의 민가에서
- 청소년폭력예방 및 금지에 관한 법안 입법중

나. 기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과의 연대

(6) 그 외의 과제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관련 행사나 학교개설에 대한 평가와 지원

학급운영모임을 위한 자료집, 담임을 위한 상담영역의 개척, 획기적인 교사연수프로그램 개발

2001년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의 사업

1. 2001년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 4대 과제

1)학급운영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가. 홈페이지활성화
나. 출판의 시작
다. 학급문집운동: 학급문집틀 보급(2002년)
라. 대숲발간

2)연구회의 뿌리를 전국적으로 내리도록 한다.
가. 대숲편집자문위원(장)과 대숲의 구독회원을 확보한다.->구독회원, 회원을 소모임으로 조직화한다.
나. 연구 모임자료집->학급운영분과 사업으로 한다.
다. 선배들의 역할을 강화한다.
연구회의 선배활동가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 적어도 한팀을 끌거나 소속되어 주발제자로 나선다.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3)연구의 질적 발전을 가능토록 한다.
연구발표대회를 성과있게 치룬다. 참실보고대회에 결합해야 할 것 같다.
- 연구주제와 발표대회의 형식이 중요. 연구과정을 좀더 치밀하게 진행한다.
- 연구회의 이념적 자기정체성과 선도성을 갖도록 한다.
공동체교육론(교실사회학), 자치교육론(학생자치연구), 만남의 교육론을 완성하고 학교붕괴론,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 나아가 학생론, 교육개혁론, 정세에 대한 입장, 교육운동론을 정립해야 한다.

4)재조직화
홈페이지: 김진황/ 홈페이지 자문위원: 김록성
대숲 편집부: 한영수/대숲 자문위원: 이상헌,황영숙
사무국장(출판):현원일/ 연구국장: 정진규

연구회의 위상: 지역의 경우 지역 노조의 산하단체로 되는 경우와 독자적인 단체로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2. '학생 생활 연구 실천 협의회' 홈페이지 운영안

1. 기존 '학생 생활 연구 실천 협의회' 홈페이지의 정식 명칭은 「학생생활과 학급 운영」으로 한다.
2. 「학생 생활과 학급 운영」 홈페이지는 일 정식 개장한다.
3. 「학생 생활과 학급 운영」 홈페이지 운영은 회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적인 운영은 연구회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하도록 한다.
4. 「학생 생활과 학급 운영」 홈페이지는 전교조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한다.
5. 「학생 생활과 학급 운영」 홈페이지의 URL은 「http://www.ktu.or.kr/~class」이다.
6. 홈페이지의 크기는 1024*768로 하며, 메뉴는 좌측과 하단에 동일한 내용을 배치한다.
- 좌측 - ①연구회 소개(김경욱) ②연구회 소식(권종현) ③ '우리 지회에선'(김경욱) ④ 이달의 학급 운영(지정필자 & 자유필자) ⑤교사와 학생(교사칼럼, 학생 칼럼은 지정 필자 그외는 자유 글) ⑥회원방(김진황) ⑦웹진 '대숲'(한영수) ⑧(정보)자료실 ⑨ 관련 사이트 ⑩ 메일
- 하단 - 다른 형태로 동일한 내용(사이트 맵에 대한 안내)

①「학생 생활과 학급 운영」 소개 ②서울, 대전, 광주, 기타 지역모임 소식('공지' 게시판) ③개별 지회의 지역 학교, 소모임 이야기 ④ 초·중·고(인, 실)로 나누어 게시판 운영(자료 첨부 가능) ⑤'교사이야기, 학생 이야기' - 칼럼, 신변 잡기(일반 게시판) ⑥ 회원 전용방(회원만 접근 가능) ⑦ 계간 '대숲'의 전문을 수록 ⑧세분화된 자료실

7. 각 메뉴별로 게시판이 주어지면 메뉴 성격에 맞게 '공지용 게시판(해당관리자만 글을 쓸 수 있음)', '자유게시판', '자료 첨부 가능한 게시판',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분류할 것이

다. 게시판은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8. 파일로 된 자료는 가급적 '자료실'에 모두 올려놓는다. 다만 ③ , ④ 메뉴만 편의상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한다.(이들 자료도 모두 링크시켜 '자료실'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9. 정기적인 필자가 필요한 교단이야기(혹은 교사 칼럼), 학급 운영 이야기(초,중,고 별로) 등은 필자를 지정하거나 추천 받아 운영한다.

10. 지역 모임, 지회 관련 글은 별도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11. 학생 자치, 청소년 인권, 생활 지도 등의 분과와 관련된 활동은 '회원방'에서 하도록 하되, 관련 자료의 공개나 게시판 게시는 담당 분과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홈페이지의 모양(집모양,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3. 홈페이지의 정기·정검은 매월 끝날로 한다.

3. 대숲

1) 대숲의 목적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속에서 겪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이하 연구회)의 연구 주제인 공동체, 자치, 만남을 함께 생각하며 당면한 교육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끊임없이 사고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지역의 소식을 공유함으로써 연구회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그 역할을 한다.

2) 대숲의 기본 틀과 기획 의도

특집과 공동체, 자치, 만남의 틀을 가지고 연구회의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자유로운 삶의 나눔과 마음공부를 위한 문예와 회원들의 삶의 이야기를 두고 지역별 소식과 모임의 지속적 연구 활동내용을 소개하여 지역의 흐름이 공유되도록 한다.

특집은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하는 공간으로 연구팀이 맡아 연구 성과와 자료 등으로 구성한다.

공동체, 자치, 만남은 연구회의 기본 연구 주제로 연구 모임에서 논의되고 실천한 내용을 담거나 외부 필자를 선정하여 사고와 실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마음공부는 회원들의 삶의 이야기와 시사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각 모임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에서 나타나는 의식과 인식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예 회원들의 문예작품을 소개한다.

지역 소식은 각 지역회원들의 소식과 활동의 모습을 담고 지역의 상황에 대한 공유가 되도록 한다.

3) 대숲의 과제

가. 지역별 편집담당자를 세우고 편집위원을 보강하고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이버 회의를 정례화 한다.

대숲 자문위원 : 이상헌, 황영숙

대숲 편집위원 : 이장우, 이계삼

나. 각 연구모임들의 활동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어야 한다.

다. 정기구독 회원을 늘리는 방법을 마련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주변사람들에게 권하는 방법)

라.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홈페이지 이용하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마. 대숲의 구독료의 현실화

연회비

낱개 판매

전교조 조직을 통한 배포

4) 대숲 5호의 평가

(1) 내용면

가. 꼭지가 너무 많다.

나. 한 꼭지 안의 내용의 연계성이 없이 나열된 느낌이다.

다. 회원들의 생활 속의 이야기가 부족하다.

(2) 형식면

가. 판형에 비해 글씨 크기가 크고 여백의 조절이 부족하여 보기에는 편하나 산만한 느

낌이고 전달하려는 강조점을 찾기 어렵다.
나. 편집자 주를 달아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다.
다. 배경과 틀의 무늬의 음영이 고르지 못하다.
라. 사진 영상 자료가 거의 없다.
마. 빈 공간에 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바. 쪽수가 너무 많다. 150쪽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3) 과정 진행
가. 지역과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 원고 수합과 교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4.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 출판 기획안(초안)

「학급운영의 첫걸음」 출판 일정

▣ 출판기획회의
일시 : 8월 11일 협의회 연수 끝나고, 12시-14시
장소 : 충북 영동
참가 : 김경욱,이상헌,김록성,성인숙,이난이,남효,현원일(남영주,송준숙,정현숙,이경재)
안건 : 1) 기획안 검토 및 확정
2) 출판일정 검토
3) 실무팀 구성 등.
일정 : 1) 8월 11일 : 출판기획 회의-기획안 및 일정 확정
2) 8월 16일 : 실무기획 회의-①출판 일정 검토 및 수정 ②원고 청탁서 발송
③편집 회의 ④출판사 확정
3) 8월 30일 : 실무 기획회의 (원고 추진 상황 및 일정 점검)/광고 섭외
4) 9월 15일 : 실무 기획회의 (원고 추진 상황 점검)
5) 9월 29일 : 원고 1차 마감
6)10월 6일- 7일 : 실무 기획회의 (원고 검토 및 수정의뢰서 발송)/편집회의
7)10월 13일-14일 : 원고 마감, 1차 교정, 재교 및 인쇄
8)10월 20일 : 원고 교정/전교조 신문 등 광고 및 지부·지회 홍보

9)10월 31일 : 출판 완료
10)11월 중으로 시판/조직 배포
11)평가 및 기획회의를 1월 연수 때 갖는다.

5. 연구발표대회

2002년 학생생활 연구실천 발표대회(시안)

1. 의의

▷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의 1년 연구 실천을 총화
▷ 자신의 삶의 변화를 중심에 두며, 서로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동 실천을 계획하고 확인
▷ 학생 생활 실천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구실
▷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참여와 자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연구 풍토를 만들어 가는 자리

2. 예상 주제

발표대회의 주제는 각 연구회의 특성을 고려하며 연구회의 향후 방향과 연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큰 주제** : 학교 살리기는 더불어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공동체 가꾸기로
공동체 교육, 학교자치, 만남 교육으로 학교를 살리자.

2002년 연구대회 주제 :

▷**작은 주제**
• **학교 자치** : 서울자치연구팀,
<학교와 지역사회가 결합한 실천사례 : 축제, 학생회 활동, 학년인성지도 사례 등)

· **학생, 교사의 아름다운 만남** : 광주,대전,서울 학급운영 모임, 서울 따돌림

<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를 넓히고 확대한 실천사례: 학부모 초청 야영, 또래 상담, 두레활동 등)

· **공동체교육**(공동체 교육론과 실천 사례) :서울 교실사회학, 광주교육정책, 광주청소년문화

· 주제에 따라 개인의 실천사례도 자료에 수록한다.

3. 연구대회와 참실발표대회의 관계

▷ 기간: 참실 발표대회에 맞춰서 추진한다.

▷ 참여 방식

연구회가 참실 대회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예정

· 1안) 독자적인 대회

① 학생생활참실 발표대회 1박2일 참여+ 연구자 대회 1일

② 초등, 중등 참실 발표대회 참가(실천사례 중심으로) 1일+

1박2일 연구자 대회는 대안제시와 향후 연구 방향 정립과 토론 중심으로

· 2안) 초. 중. 고, 연구회의 4분과로 나눠서 발표 : 1박 2일

이 안으로 하면 깊이는 있으나 다른 분과 참여에 한계 : 종합 토론으로 극복할 수도 있음

· 기타)

▷ 주제 참여의 범위

· 연구회가 참실 발표대회에 출품할 경우 실천사례 중심으로 하고

· 연구대회에 제출할 각 연구회의 공통연구와 개별연구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예 : 연구목적, 과정, 연구효과, 문제점 등)

3. 연구실천 발표대회 점검 일정

1) 준비일정

· 1차 점검 : 2001년 7월 11일 (주제, 분과 구성, 일정 공유 등)

· 2차 점검 : 2001년 9월 30일 까지 분과별 주제 및 계획서 탑제(학생생활연구회 홈페이지)

· 3차 점검 : 2001년 10월 28일 12시(협의회 집행부와 분과장- 대전지부 사무실)

연구상황점검, 주제협의

· 4차 점검 : 2001년 12월 8일 까지 연구 결과 제출 : 2주 동안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로 검토

2) 연구대회 준비 책임

▷ 전체 담당 : 정진규 ▷ 서울 : 이문석 ▷ 광주 : 이겨라? ▷대전 : 장은정 ? ▷ 부산 ▷ 전남 ▷ 대구 ▷ 충남, 충북 ▷ 강원

4. 2001년 연구실천발표대회 일정(참고자료)

▶13일(첫날)

14시 ~14시 30분 : 개회식

14시 30분 ~15시 : 기조강연(협의회 회장, 연구발표대회의 의의)

15시~16시 20분 :

1주제(우리 시대의 올바른 교육(사)관, 학생관 정립을 위한 실천방안)

① 교실사회학팀 : 학급의 중요성, 공동체성의 중요성

② 교육열분과 : 성차별 의식과 행위가 인간 내면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2주제(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①학급운영분과 : 사랑으로 아이들이 변했어요

(자아 정체성형성기의 교사의 사랑과 관심이 미치는 영향)

② 청소년문화분과 : 또래의 만남이 주는 의미와 집단상담으로 아이들 관계 맺기

▶14일(둘째날)

10시~12시 분과토론 : 2001년 연구방향, 과제 제안 함께

12시~13시 : 점심

13시~13시 30분 : 분과토론 설명

13시 30분~14시 30분:총괄토론(전체)

14시30분~15시 10분 : 연구과제 제안 토의

15시10분~15시30분 : 평가, 소감 나누기 및 폐회식

6. 지역모임 사업

1.수도권

각 소모임별로 명칭을 갖도록 한다. 각 소모임은 자기 완결구조를 갖도록 하고
신입회원은 그 소모임을 통하여 재생산되도록 한다.
한달에 한번 세미나나 친목모임을 갖는다.
한달에 한번 협의회 회의,학생청소년위원회 회의,수도권모임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는다.
회장과 총무를 둔다.

(1) 학생의 집단행동 및 따돌림연구모임(따사모)
김경욱(모임장),김혜정(간사), 김은주,임정근, 홍성미,전혜영

따돌림이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교육제도의 온갖 모순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밝히고, 따돌림이 일반화된 현상임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교육,인간에 대한 거시적 이론과 학교현장이나 학생에 대한 미시적 이론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이론과 학교현장과의 결합을 중시한다.

따돌림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에 의거하여 따돌림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1년에 한번씩 각자 리포트를 작성하여 1년을 마감하면서 자료집을 하나씩 만들어 낸다.

(2)교실사회학팀: 이문석,하병수,임정근,김은하,오지연
· 수도권 지역의 연구회 회원(서울,경기,인천)들을 위해 1달에 한번식 세미나를 연다

(3)학급운영모임: 임정근,김은하,김진영,김성찬,견한수,윤경수,이연경,이연주,황성현,이상원

(4)학생자치모임:학생생활규정 개정운동을 위한 교사 간담회

단위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형식적 절차가 아닌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경로로 운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에 필요한 사전 논의와 경로 제시를 위한 논의단위가 간담회이며 전교조 각 지부와 지회·분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안에 따라 생활구정 개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간담회의 결과는 소책자로 출판한다. 간담회는 서울 지역의 교사9명으로 구성되어 6월 15일부터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는 학생생활 나눔터에 게재됨)

모임에서는 참가자중 선정된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기획과

토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참가자중 학생생활연구회, 교사-학생-학부모 연대회의에 역할을 나누어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두발연구 등 생활지도와 학생자치, 청소년 문화 운동 실천 영역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분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모임의 과정은 출판기획회의를 통하여 소책자로 출판하는 것을 과제로 하며, 서울지부와 본부 학청위와 협의회를 통하여 성과를 공유하며 네트웍을 확대해 나간다.(내용의 지속적 생산, 사업으로 외화, 연결망 확대 등)

2.인천

학급운영모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천에서 학급운영이 가능하도록 이장우,성인숙, 한영수등이 돕도록 한다.
인천 초등 학급운영모임은 일단 박정애 만 결합되어 있다.

3.대전모임

대전은 학급운영모임이 참실의 한 분과로 결합되어 있다.
· 넝쿨: 학급운영모임

4.광주모임

광주지부 산하 대중 전문조직으로 자기 위상을 갖춤
학급운영모임: 분과장---박성윤, 총무--- 이은록
각 학교 학급운영소모임 지원, 메일링 작업,학급운영 활동가 교육
청소년문화분과: 분과장--- 정진규, 총무--- 김애겸
정책분과: 분과장---김재황, 총무---김덕우
성평등분과: 미정

5.기타

여수 학급운영연구모임, 군산 학급운영연구모임 등 전국에 산재된 모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7. 전국학생청소년생활연구회 회칙제정(시안)

1조(명칭):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전국학생청소년(생활)연구회

2조(목적): 자주적인 삶과 탐구의 공동체
공동체교육,만남의 교육,자치의 교육
학생청소년생활연구, 정책개발의 선도자가 된다.
생태,통일,양성평등의 새시대를 밀고 나간다.
거짓된 교육개혁의 허상을 벗기고 참된 교육
학생과 교사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준다.

3조(사업): 연구,출판,연대

4조(정회원):
의무: 소모임을 하는 사람,연구회나 전교조청소년위원회 부서장이나 모임을 하는 사람 중 원하는 사람
회비는 1년에 3만원으로 한다. 모든 투고시 원고비를 실비로 한다.
권리: 대숲을 1년에 4회 받는다. 기타 학생청소년연구회에서 발행한 자료집을 받는다.
선정된 글은 출판한다.
연구발표대회나 전체연수에 참여한다.
5조(특별회원 또는 준회원)
의무: 1년에 3만원의 회비를 낸다. 모든 투고시 원고비를 실비로 한다.
1년 동안 각 지역 소모임이나 대숲, 홈페이지등에 글을 올리거나 발제를 하는 사람
권리: 대숲을 1년에 4회 받는다. 기타 학생청소년연구회에서 발행한 자료집을 받는다.
지역모임의 장을 선출한다. 연구발표대회나 전체연수에 참여한다.
6조(구독회원)
의무: 1년에 3만원의 회비를 낸다.
권리: 대숲을 1년에 4회받는다. 연구발표대회나 전체연수에 참여한다.

7조 (대표자회의) 연구발표대회나 연수시
구성:각 지역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소모임의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기능: 회장을 선출한다. 예결산권을 갖는다. 상임위 선출
8조(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각 지역의 대표들 또는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영역별 대표들로 상임위를 꾸리도록 한다.
기능: 년간사업기획과 평가권, 부서장 임명 동의권
9조(집행부)

-정책국장: 정책국장은 학생청소년위원회 정책국장을 겸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한다.
-출판국장: 출판섭외,기획,원고 수집 및 청탁
-총무국장: 회원관리, 회비관리, 집회시 총무역할
-정보통신국장: 홈페이지 관리,홈페이지 원고 청탁
-편집국장: 대숲편집기획,원고 수집 및 청탁
-연구국장: 연구발표대회를 준비해 나간다.
필요시에 부장은 집행부회의에서, 국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설,개폐할 수 있다.
집행부서장 회의에는
10조(회장)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각 모임의 대표자 회의 임명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후 2월 말까지로 한다.
11조(부회장) 부회장을 둘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대신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10조(자문위원)
각 집행부서의 자문에 응한다.
자문위원은 상임위원, 지역대표자중에선 우선 선출한다.

학생청소년위원회를 생각하며

· 광주 아담꿈 생각 ·

전교조 광주지부 참실위원장 · 아담꿈 도우미
김록성 · 광주 숭신공고

▶전교조 청소년위원회의 역사

청소년위원회는 어떤 조직보다 긴 역사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위원회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유지하면서도 개선조직의 후원보다는 자생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 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사고의 진실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청소년 위원회의 역사를 몇 줄로 살피어 볼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부족한 점, 실수한 점은 보충발제를 하였으면 한다. 기술은 시기별로 나누어 쓰도록 하겠다.

① 잠복기 : 전교조 탄생이전 많은 교사-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사업에 투신하여 경험을 축적한 시기

② 청소년 자치 중심기 (88년~92년)--학생사업국

비합법 시기에 잠복하였던 역량들이 결집하여 학생사업국을 만들었다. 당시 전교조는 89년 이후 학생들의 전교조지지 투쟁의 여파로 자의 반 타의 반 청소년 학생회 활동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학생사업국도 집결된 교사들의 성분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활동의 중심이 학생자치였던 시기였다.--학생자치 학교 등의 모습으로 등장--

하지만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교사들은 소수였고 다수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힘들어하였다. 결국 학생차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은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활동이 위축되게 된다.

③ 교사 중심 활동기--1기 (92~96년)--학생생활국

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학생사업국 학생들의 뜨거운 참교육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학생자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의 의식 한계가 분명하였고, 비합법조직 상태로 있던 시기여서 학생들의 자치를 직접지지 지원하는 사업은 전개하기가 곤란하였다.

학생사업국은 직접적인 자치지원활동이 불가능하여지면서, 교사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중심의 사고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교사중심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노력들은 전국연수 및 회보 발간으로 이어졌다. 불가피한 활동영역이동이었지만 오히려 큰 계기로 삼아 학생생활국의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학생 자치를 위해 교사 삶을 자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고민들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고의 핵심은 학생중심이다. 이것이 기타 전문조직과 차별성이다.

학생생활국은 학생자치와 교육을 통해 교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실천장소로 '학급활동과 생활교육' 영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급운영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였고, 각종 학급운영사례에서 교사의 자세, 원리를 축출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많은 문제의식들이 다양한 연수와 매체를 통해 교사 대중 속에 일반화되었다. 학생생활국은 활동은 교사 삶을 조명하면서 학급운영을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반대하여 교사-학생의 인간적인 관계를 속에 상호성숙을 위한 '창조적 실천, 동일한 교육관'운동으로 말할 수 있다.

학생생활국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문제 의식이 보다 풍부하고 성숙되었다. 교육관, 생활교육으로 활동영역이 활동이 증대되었고, 교사존재론, 공동체 교육론, 만남의 교육, 청소년문화, 학교교사문화, 등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런 깊이는 한 현장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교육철학적 모색의 가능성마저 지니게 된다.

④ 교사 중심의 활동 2기--지역중심구조의 전파

전국적인 사례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지부별 자체 연수를 고민하였다. 먼저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중심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논란 끝에 전국연수를 폐지하였다. 당연히 문제는 이제 지역중심 주체이다. 다행히 지역중심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기 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학급운영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지역연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⑤ 교사운동과 학생운동 지역운동으로 전망 만들기--청소년위원회

지역중심의 연수가 되면서 일단 학생생활국의 중심사업인 전국연수을 중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량을 다른 문제 의식으로 이동시키었다.

㉠ 지역연수의 한계 극복

지역중심의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연수는 문제가 있다. 그 동안 그렇게 극복하려고 하였던 생활교육기법 중심, 프로그램중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학급운영과 생활교육을 선택한 것은 교사의 삶의 변화 이를 통한 학생의 삶을 변화의 모색, 공간으로 선택한 것이다. 진정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사고하고 고민하는 주체로서 삶, 교육관이었다. 연수는 철저히 교사들이 교육관과 자아성찰을 점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 지역연수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 학생중심의 사고에 동참하는 네트워크 형성--학생생활연구회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학생중심의 사고가 나름대로 전파되면서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형성된 학생중심의 사고를 하는 교사들의--교육의 목표를 학생의 삶의 변화, 교육을 통한 행복감을 지닌 교사--연대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틀이 현 학생생활연구회이다. 연구회를 통한 연대를 구축하여 현 한국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통한 새로운 교육 꿈꾸기를 하여야할 것이다. 분산적으로 진행된 역량의 결집을 통한 기능주의적 참교육운동을 넘어 변혁으로 참교육운동의 강화를 위해서.

㉢ 과거 사업성과 공유노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오면서 일부교사들만 공유하고 말았던 전국자료로 다시 정리하여서 전국교사들에게 전파하여야 하는 사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학생사업영역회복으로 균형 있는 청소년 위원회

그 동안 어쩔 수 없이 방기되었던 청소년 영역의 회복을 위해 사업중심의 일부 가 이동을 하여 본래 뿌리인 학생자치로 돌아 가야할 것이다. 학생자치 + 교사자치의 균형을 이루어야할 준비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는 작년부터 고민을 모색하였고 올 해 나름대로 학생신문 등의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자치를 중심으로 지원 강화하는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할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담론의 중심 청소년

앞으로 교육상황은 교육 분권적 상황이 예견된다. 시민사회에서 풍성한 교육담론이 그 정황증거이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교육담론을 제시하면 이끌어 가고 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 지도 위의 세력판도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담론의 강자들은 행정관료들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에 가능한 사업영역을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담론과 연결이 될 수 있는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의 내용성과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사업의 뿌리 확인하기

(93년 학생생활국 일꾼연수 자료 '창조적 교육실천' 발췌)

1.전교조 운동의 토대는 참교육실천

전교조 운동이 오로지 경제적 활동만으로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전문직 단체형식의 교육운동 수준에서 자기 운동방향을 지닌다면 그것은 역사가 이 시대에 부여한 사명을 망각한 일이다. 전교조 운동은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면서 이루어진 값진 성과이다. 따라서 전교조 운동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보완 속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2. 교사들의 자주적 운동의 가능성

전교조 운동의 올바른 방향은 현장단위의 참교육실천이 내실 있는 조직으로 전대되면서 수업권, 담임권 등의 교육권수호 및 확보 투쟁을 발전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참교육운동은 교육을 통한 변혁운동이다. 참교육은 교사의 의식을 변화 발전시키며 학생을 올바른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지닌 새로운 인간으로 육성한다. 참교육관이 확고한 교사들은 이런 교육을 가로막은 요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조합원부터 참교육관을 가지고 실천을 조직적으로 지도 지원하여 조직활동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관이 운동이다.

학생들을 어떤 인간으로 육성할 것인가? 우리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적 질문에 만반의 준비가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어떤 것을 알게 하는가에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생생활국은 교육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참교육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더 나아가 모든 조합원이 가져야할 교육방법론에 시선의 중심을 두고 있다.

4.새로운 교육을 준비하자.

참교육을 단순히 교육내용에 국한하여 생각한다면 단순히 지식중심을 벗어나 총체적인 내용, 사회변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내용을 바꾸면 된다.--일부 주체분과, 교과의 한계--그러나 다음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 참교육을 하는 교사의 모습은? 어떤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가? 그 방법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어떤 것이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기여할 것인가? 아이들이 살아있는 수업은 수업방법이 달라진다고 가능한가? 내용만으로 불가능하다. 참교육이란 현행 제도교육과 관점을 달리하는 새로운 교육을 의미한다. 전면적인 질문과 새로운 교육의 꿈을 준비하여야 한다.

5.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중요성

[모든 교사의 공통적인 관심이다.]

교과가 다를지라도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을 자신의 기본적인 존재방식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집단생활에 관심이 끌리는 것은 교사마다 그 강도의 차이가 있고, 자발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모든 교사의 생활 속에 열려 있는 문제영역이다.

[단위학교 조직활동 내용으로 적합하다.]

[교사의 전문성에 적합한 공통필수과목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반하여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교육하는데 대한 전문성을 말한다. 이것은 어느 교사의 취미나 특정한 전문적 관심, 주관적인 열정으로 선택되는 내용이 아닌 교사인 이상 모두가 몸담고 거치도록 해야할 참교육실천의 공통 필수과목이다.

[아이들을 변화하도록 하는데 유력하다.]

6. 학생생활 사업의 분야

㉠. 학급운영 -자주적 공동체를 교육

㉡. 생활교육

생활교육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방식이며, 인간관계이다. 바로 이런 인간관계를 풀어 가는 것이 생활지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도의 차원에 머무른다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다. 학생과 교사 상호간의 인간적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전제로 될 때 비로소 생활교육은 가능해 진다.

학생생활 문제를 바라보면서 교사가 지닌 진정한 삶의 자세로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의 문제에 접근해 보려는 의지, 이것은 참교사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가려는 의자의 다른 형태이다. 참교육관을 정립하고 진정한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실험적 과정이다.

㉢. 학생자치활동 ㉣지역, 학부모 등과 같이하는 활동

7. 학생생활사업의 핵심

㉠ 교사의 변화

참교육을 하려면 참교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의 핵심은 일정한 실천을 통한 교사의 자기 각성과 교육관 정립을 집단적인 흐름으로 창출해 나가는 데 학생생활국이 기여하여야 한다.

㉡ 실천방도는 공동실천

▶사업 범위

청소년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학생자치, 만남의 교육, 교사삶과 학생 삶의 문제가 중심 화두이다. 따라서 교과개발, 교권운동과 운동 전개 방식과 내용도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청소년위원회 사업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① 교사를 대상으로 고민과 생각을 알리는 길.
- 직무연수(학급운영, 생활교육), 잡지 발행, 강좌, 등등

② 교사 개인들이 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주는 길
- 사제동행, 어린이 날, 각종 캠프 등

③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청소년 음악제, 두발찬반토론 등등

④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지원하는 길]
- 자치학교, 학생회장단 지원 등등

⑤ 시민사회 학생 담론 형성
- 시민토론회, 두발공청회, 인권포럼, 등등

▶광주지부사업 소개

광주지부도 사업 변천도 청소년위원회의 변화를 따른다. 초기는 여름학교 등을 통해 일시적 대안교육형태의 자치교육을 하였고, 이후 교육관과 교육방법론, 교사 존재론 운동을 하였다. 하지만 문제의식의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다. 올해는 학생자치와 학생대상의 직접사업의 죽어버린 역사적 전통에 겨우 기름을 치는 준비운동을 하였다. 이런 노력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실험적이며,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교사대상이다.

1. 연수 및 강좌활동

㉠ 상담 ㉡ 성평등 ㉢ 학급운영 ㉣ 마음공부 ㉤ 학급운영계획 세우기

2. 십계명 사업 - 교사 스스로 일상적으로 삶을 반성하는 틀을 제공함.

> 아이들의 성장이 교사의 기쁨
> 학생들을 변화를 믿고 만나라
> 학생들과 자주 웃어라
> 학생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라.
> 하루에 몇 번이던 학생들과 인사하라.
> 학생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주어라.
> 칭찬을 아끼지 마라.
> 학생이기 전에 사람으로 존중하라.
> 학생들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고 충고는 나중에 하라.
> 학생들을 포기하거나, 단정하지 말라.
> 학생문화를 존중하라.

>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물음?
>
> 오늘, 혼자 수업하지는 않았습니까?
> 오늘,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 오늘, 몇 번의 짜증을 냈습니까?
> 오늘, 아픔을 함께 하는 만남이 있었습니까?
> 오늘,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만났습니까?
> 오늘, 웃음으로 만났습니까?
> 오늘, 솔직하고 편안하게 만남을 하였습니까?
>
> 교사로 성숙하기 위한 노력하였습니까? 오늘..

3. 연석회의 -지역단체와 참교육실천에 있어 연대를 모색한다.

4. 교육관 운동 -신규교사용, 참교육실천자료집 제작, 학생생활자료실 운영

5. 사제동행 산행 대회와 사랑 만들기 봉사활동 사업

6. 연대사업 -YMCA, 민노총, 5월의 빛, 알바센타, 홍사단, 5.18기념재단, 청소년 상담실, 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긴급제안]

학생생활연구회 대숲은 상급논의를 중심으로 대숲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학급운영과 생활지도'의 장점에 더불어 약간 원론의 측면이 가미된 대중잡지를 지향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다수 회원들의 필요한 성격들도 인간 냄새가 나는 내용 말입니다.

· 집행단위 책임자들은 생활점검 및 의식통일은 메일로 하였으면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동안 모임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서로에게 보내주고, 서로의 고민지점을 서로 확인하여 보는 것이 어떤지요.

· 장점 : 각 모임들의 자료와 커리의 강점을 바로 배울 수 있다.
선배그룹들의 생활을 서로 점검하고 세밀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대숲을 보다 대중 잡지 성격을 만들어 운동의 지평을 크게 할 수 있다.

학생생활영역의 소모임 운영상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 발표 1

빛고을에 아담꿈이라는 모임이 있다네

광주학생생연구회 학급운영 분과 '아담꿈'

아름다운 등불

아름다운 사람은 이렇게 그 자체로
사람을 설레게 하고
사람을 성찰하게 하고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밝히게 하는 구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려면

내가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겠다.
내가 있음으로 자신이 한 번 더
돌아봐지고 내가 있음으로 자기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을 망치는
것들과 치열히 싸워가게 하는

아름다운 등불로 걸어야겠구나.

-박 노 해-

1. 모임의 프로그램 및 각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박성윤 회원)

-- 교육의 원리가 보편성을 지닌 인간성에 바탕을 두었다면 자치, 공동체, 만남의 논리는 소모임에서 실현되고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자발적 발전 가능성을 믿고 살자.

광주학생생활연구회 학급운영분과(아 · 담 · 꿈)는 격주에 일 회 학습을 한다. 그리고 년 2회 연구회 주체로 교육기행에 참가하고, 분과 자체로 년 4회의 야유회를 간다. 또한 메일링 작업, 생일 챙기기, 영화보기, 방학 중 물놀이 · 스키 타기 등 일상적인 만남도 자주 가진다.

학습

아담꿈은 2주마다 한번씩 모여서 학습을 한다. 이때 1시간 정도 교단일기를 공유하고 2시간 정도 주제 학습을 한다. 학습시간은 격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저녁을 미리 해결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대부분 7시쯤에 시작된다. 모임마다 10명의 회원 중 대부분 90% 정도의 출석률을 자랑하지만 모임시작 시간의 준수는 우리 모임의 중차대한 과제로 항상 남아있다. 학습은 교단일기를 읽는 것으로 시작된다. 2주간에 있었던 일 중 하나, 둘을 일기형식으로 써와서 회원들 앞에서 각 각 돌아가면서 읽는다. 이 일기의 내용은 시시콜콜한 아침 커피 향 주제부터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교사의 삶을 고민하는 무거운 주제까지 제한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일기를 읽고 난 후 경청하던 회원들은 격려, 칭찬, 환희, 충고, 한숨 등 등 다양한 형태로 회원의 감정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노력한다.

교단일기가 끝나면 주제학습이 시작되는데 항상 사회자와 발제자가 바뀐다. 발제자는 미리 예고되어 있지만 사회자는 그 날 그 날 정한다. 회원 중 덜 피곤해, 에너지가 충만해 보이는 회원이 사회자가 되어 학습이 쳐지지 않고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주제 발제의 경우 작년까지는 공동 발제를 원칙으로 진행을 해 왔지만 올 해 부터는 연구회 회장님의 권유와 회원들의 합으로 개인 책임 발제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교단일기 읽기와 주제 발제로 구성된 학습시간은 여러 장단점이 존재한다.

교단일기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일기를 남 앞에 공개한다는 것은 회원들간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 된다. 교단일기를 쓰고 학습시간에 읽음으로써 회원간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다. 일기를 쓰면서 회원들의 믿음을 기대하고 일기를 읽으면서 그 믿음을 확인한다. 회원들은 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공감하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런 교단일기 읽기도 가끔은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고민해결형 응답, 공감대가 어려운 일기, 항상 가벼운 일기, 죽

어도 교단일기를 써오지 않는 인간, 등

주제학습은 지난해의 공동 발제에서 책임 발제로 바꾼 후 그 장점들이 많아 졌다. 우선 공동발제는 회원전제의 무책임성을 나타나게 만들었고, 일부 역량이 뛰어난 회원의 독무대로 흐르고 했는데 책임 발제는 이를 소거해 주었다. 또한 과도한 학습과제로 부담을 안고 모임에 나오던 회원들이 부담 없이 모임에 나오게 되어 참석률을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모든 발제는 공동 발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회원들의 특성과 모임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타이밍에 발제 방식의 전환이 있었다. 머지 않아 다시 공동발제로 원상 복귀할 것이지만...

메일링

우리 회원들은 메일을 보낼 때는 개인적 메일이라도 모든 회원들이 같이 읽어 볼 수 있게 주소록을 만들어 전회원 들에게 메일을 보낸다. 개인간의 사소한 감정 싸움도 개인끼리 해결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메일은 회원전체에게 2주 내내 모임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게 만드는 힘이 된다. 격 주 모임이라 한 달에 2 번 밖에 못 만나지만 이러한 메일링 작업 덕분에 엊그제 만난 듯 반갑고 친근해진다.

야유회(년 4회)

아담꿈의 또 하나 특징은 분기별로 밖에서 보내는 야유회이다. 학기 중은 주말을 이용하여 1박 2일로 야유회를 떠난다. 여름방학은 물놀이, 겨울방학은 스키장으로 떠난다. 놀러 가는 날이라 회원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참석률 또한 학습 못지 않게 높은 행사 중 하나이다. 장소를 정하는데 간간이 의견이 대립되기도 한지만 갔다와서는 항상 만족스러워 한다. 어찌 보면 한 번도 실패 한 적 없는 프로그램이 야유회가 아닌가 싶다.

모든 회원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늦게 까지 날새고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방학중에는 집중 학습 외에는 정규적 만남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논의와 회원의 삶을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러 상황에 야유회는 회의 시간이 무한히 보장된 장이므로 모든 회원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그 동안 형식적인 만남을 거부하고 가족 같은 만남을 지향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된다.

방학중 집중학습

방학중에는 집중학습을 3, 4일 실시한다. 방학중에는 모임이 없어 자주 못 만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다. 이 때는 학급운영 이라는 모임의 명칭에 어울리는 학습주제 보다는 색다른 학습주제로 학습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들이 방중 연수나, 귀향, 등등의 이유로 학기 중 학습보다 참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흠이다.

그 외 일상적 만남

생일 챙기기, 집들이, 회원들 집에서 학습하기, 등 기능적, 기술적으로 전락하기 쉬운 소모임 참여 자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신만의 울타리를 허무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모임의 위기의 순간들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넘었다.

2. 아담꿈이 넘었던 문제 의식들(김형기 회원)

- 위기를 넘었다. 많은 순간에 아직도 위기는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집단적 규율성이 떨어지면

아담꿈'모임 초기의 혼란

아담꿈 모임의 초기에 모임 인원수는 대략 6명 정도였다. 선배 교사의 도움으로 아내와 함께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무작정 선배 교사들이 의지하며 보냈던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몇 명이 선생님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모임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엔 이름도 있었고 유능하신 분들이.. 그러나 모임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유독 한 분이 선생님이 모임을 이끌어 갔다.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모임을 이끌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담꿈 모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선생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모임에서 초기에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 있기에 유지되는 것 같다. 나는 지금도 그분이 존경스럽다.

아담꿈'모임의 학습에 따른 방향

새롭게 모인 선생님들과 함께 학급운영에 대한 학습을 했다. 그런데 신규교사가 많은 모임에서 학습을 어떻게 이어갈 지,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갈팡질팡 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선배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학습내용과 학습방향을 이끌어 갔다. 그 당시에는 그럭저럭 모두다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신규선생님들이 학급운영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선생님들은 나태해졌는지(나도 포함) 일방적으로 이끌려 갔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선배교사가 다 하겠지 하는 태도로 학습에 임하게 되었다. 이 시간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되었다. 선배교사는 선배교사대로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후배 교사들의 노력 부족함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후배교사들은 일방적인 학습에 대한 또 다른 불만과 커리큘럼에 대한 부제 등에 회의감을 느낀 것 같다. 그래서 여러 번의 토의 끝에 책임발제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때로는

부담감이 되고 어려운 책들도 읽지만, 계속되는 토의와 삶의 이야기를 통해 모임원 각자가 책임을 갖고 발제를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마음이 편해질 때가 많다(때때로 엄!청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모임에서 새로 들어 오시는 선생님들과의 문제

어떤 모임이나 시간이 흐르면 새로 모임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있다. 아담꿈 모임에서도 여러 분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학습면이나 모임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다. 새로 오신 분들이 학습 면에서 기존의 선생님들과 인식의 차이나 방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임에서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모임을 유지한 것 같아 지금도 모든 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다. 기존의 선생님들은 더 앞으로 나 갈려고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따라 가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으나 서로의 교단일기나 토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서로를 더 믿을 수 있게 했었던 것 같다.

개인적 삶이 힘들게 할때 우리는 이렇게 극복했다

모든 모임은 개인이 모임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아담꿈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모임 구성원이 모두다 가족 같은 느낌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같다. 나도 여러 모임을 보았지만, 아담꿈 같은 인간미가 보이는 모임은 없었던 같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는 아담꿈 모임을 어쩔 때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인간적인 면을 배운다고 한다.(가끔씩은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아담꿈 모임에서는 교단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학교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통해 삶을 반성하고 서로를 이해한다. 나도 학교에서도 교단일기를 써 봤지만, 학교에서 쓰는 것 보다 아담꿈 모임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진실하게 쓰는 것 같다. 심지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족이야기까지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는 일기를 보면 내가 부끄럽기 까지 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도 잘 갔다 오라며 전화한통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진한 인간미를 느끼기도 했다. 생일이면 한 통의 메일이라도 서로 보내주는, 방학이면 야외로 나가 서로의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작은 것에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모임은 때로 서로의 의견이 어긋나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모임이 됐지 않았나 싶다. 때때로 진한 감동을 주는 모임, 서로를 내보여줄 수 있는 모임이 있기에 나는 아담꿈을 사랑한다.

3. 집행부교체기에서 문제를 극복했던 것(이어라 회원)

- 회원들의 증가된 자발성의 발현되지 못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너무 소중한 모임이었기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집단적 인격과 규율을 고민하였다. 모임은 항상 성장의 진통이 있다. 위기를 어떻게 질적 발전으로 담보하는가가 문제일 뿐이다.

도우미 선생의 독주

내가 아담꿈에 결합하게 된 것은 2000년 4월 초 정도였으리라 생각된다. 처음 모임을 나갔을 때 초기에 모임의 주력 선배선생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휴식을 이야기하셨고, 회장님은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다. 모든 일정과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은 스스로를 도우미라고 표현하시던 한 선생님이셨다. 모임참석률이 저조하던 회장님이 탈퇴를 이야기하시자, 자연스레 모든 모임의 주관은 도우미 선생님이 하시게 되었다. 학생생활연구회 운영위원회도 그 선생님이 참여하시고, 그 선생님에 의해 커리가 짜여지고, 모든 토론은 그 선생님의 주도로 이루워졌다. 처음 모임을 시작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이라서 주도적으로 모임을 끌어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토론을 하더라도 회원들 고민의 수준과 인식의 폭도 그 선생님을 능가할 수가 없었다. 자연히 모임의 중심은 그 분에게로 기울게 되었다. 그분의 모임에 대한 헌신성은 놀라울 정도였다. 한번이라도 교단일기를 써오지 않으시는 법이 없었고(그리고 스스로의 고민을 너무도 진솔하게 털어놓으셨다.), 다른 사람이 발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발제하시는 것처럼 준비해 오시고, 회원들 하나 하나의 애경사나 고민을 들어주시고, 찾아가 손 내미시고.... 오늘의 아담꿈이 있게 된 것에는 그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폭력정권 타도

그러나 차츰 그러한 방식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모임의 프로그램이나 다른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집단적으로 논의해서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머릿속에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가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 준비하지 않아도 발제가 진행되게 되므로 모임의 커리를 운영해나가는데 회원들의 책임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토론이 토론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되었다. 인간관계 또한 그분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어서 회원들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아담꿈은 철저히 일인중심 체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차츰 회원들도 그러한 면들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임 자리에서 회원들은 그분에게 투덜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감정의 문제제기 이상은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

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잘 모르면서 일년이 지나갔다.

도우미를 넘어 자신이 주인되는 모임으로

2000년 겨울... 갑자기 광주 학생생활연구회에서 체제의 변화 논의가 있었다. 기존의 분과중심 체제가 분과중심의 폐쇄성으로 굳어져 회원들간에 괴리감이 있고, 지역 활동가들을 양산시켜내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운영위에서 논의되어서 "프로젝트 체제"로의 개편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 분은 전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아담꿈에서 공개적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대로만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아담꿈에는 거의 통보형태로만 이야기하셨다. 프로젝트 체제로의 변환의 필요성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던 회원들은 문제제기를 시작하였다. 그 문제제기는 분과에서 합의되지 못한 안건이 운영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까지의 그분의 운영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였다. 또 그런 제기들은 광주 학생생활연구회 전체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도 맞물려졌다. 자발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운영위원회에 아담꿈 식구들의 참여가 조직되었다. 뒤이은 겨울 직무연수 준비는 분과의 폐쇄성과 집단적인 준비의 부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담꿈 회원들에겐 미약하지만 개인적 제기에서 조직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워졌다. 느리지만 하나하나의 안건을 집단적으로 논의해서 역할을 정하고, 책임감있게 아담꿈의 이름으로 수행하자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리게 되었던 것이다.

집행체계의 변화

2001년 집행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구성되었다. 2000년 아담꿈 운영을 평가하여 그 분의 역할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회장, 총무, 도우미의 3인이었던 집행부를 많은 수로 늘렸다. 회장, 총무, 자료, 서기, 외부 담당, 내부 행사 등... 아담꿈 식구 모든 이에게 하나 이상의 역할이 맡겨지게 되었다. 발제도 책임발제로 바꾸고 사회도 돌아가면서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일인 중심으로 이루워지던 방식이 하루아침에 쇄신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인 중심의 토론구조는 존재했고, 바뀐 회장에게 그분과 같은 헌신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토론이 갑자기 모든 이들의 참여로 잘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참석률은 높아졌으되 모임 때마다 빡빡하게 진행되었던 일정이 갑자기 느슨하게 바뀌고 논의가 탄력을 잃어갔다. 관성적으로 모임을 하되 예전과 같은 집중되는 분위기가 없어졌다. 인간적인 교류도 모임이 느슨해짐과 동시에 느슨해졌다. 작년에 비해서 회원들의 개인적 역량이 성숙되어 여러 가지 것들에 바빠지게 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비판과 자성의 노력이 필요했다. 각자 역할은 맡았으되 모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도 부족했고, 아담꿈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를 진심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었다.

백아산 이후 아직도 문제는 있다.

5월에 우린 다시 한번 백아산으로 향했다. 개인별로 자신의 역사성을 밝히고 현재 모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느슨해진 아담꿈 시계를 다시 조이기 위해서였다. 백아산 이후... 신자유주의와 대안학교 학습을 책임발제로 진행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있었던 각종 사건들을 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누군가(??)의 독주를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새로운 회장을 애정으로 다그치면서... 우리는 아담꿈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후기 : 아직도 우리에겐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 운영상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지향점을 모든 회원들이 깊이 공유하고 실천하고 있는가의 문제... 그 지향점을 모임 내에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구현할까의 문제... **러거 아담꿈 회원이셨던 분이 말했다. "현재의 사회가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맺등어 가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대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담꿈 식구들 관계와 삶의 짓이 우리의 대안으로 굳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4. 회원들의 자발적인 연대 노력 손 내밀기 운동(진선영회원)

-연대는 머리가 아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와 시간과 관심 속에 이루어진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한다. 가능한 삶을 공개함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고민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회원들 사이에.

손내밀기란?

손 내밀기는 곧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회 생활을 통해 만난 성인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또 타인에게 보여준다.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바탕이 되야 한다. 물론 많은 대화도 있어야 한다. 아담꿈 식구들 간에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개인의 성장과정, 가정사, 고민, 애정 문제 등. 모임 시작부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담꿈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교술을 넘어 가슴 열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나에게는 참 힘들었던 점이기도 하다.

처음 나에게 아담꿈은 여느 모임과 다르지 않았다. 첫 발령이 난 그 해 겨우 두 달쯤 지나서부터 모임이 만들어져 함께 했으니 나의 교직 생활 첫 시작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아담꿈은 나에게 얼마동안은 그냥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아담꿈 식구들과 달리 이곳은 내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란 생각으로 항상 거리를 두었다. 어차피 얼마 안 있어 떠나야 할 모임인데 가까워지면 뭘 하겠느냐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아담꿈 식구들과는 사적인 얘기들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광주에서 발령받고 나서 1년 남짓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시험을 이곳에서 보고 이곳에서 교직 생활은 시작했지만 이곳은 나에겐 낯선 곳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곳, 주위 풍경도 사람도 모두 내게는 낯설었고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견딜 수 없게했다. 날마다 떠나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러니 모임도 다분히 형식적일 수 밖에....

가슴을 열어가는 아담꿈의 비결

그러나 아담꿈 식구들은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았다. 여느 모임과는 달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정보만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다. 회원들, 개개인의 내면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임이었다. 불편했다. 마음을 열고 만난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인데, 나는 쉽게 그러질 못했다. 아담꿈 식구들이 나에게 자꾸 강요했다면 아마도 모임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모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보았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벽도 서서히 무너졌다. 아직도 더 무너져야 하지만...

손 내밀기 세상의 꿈

손 내밀기를 통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보고 희망을 보았다. 그 희망이 나에게 생활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5. 아담꿈을 통한 아이들 보기.(송유미 회원)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해와 폭이며 궁극적인 진리에 도전입니다. 학생이 우주라면 논리도 우주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인 길을 이 땅에서 혼로 갈 수 없기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학급운영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통한 각성이었습니다.

남자 친구의 변화

아담꿈 속에서 난 많은 사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가식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념과 삶의 괴리감에서 오는 갈등을 차

근차근 그리고 용기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처음 아담꿈에 합류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학급 경영 뿐만 아니라 박성윤 선생님과의 사고의 공유였다.

난 박선생님이 아담꿈에 처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꼭 모임에 들어가야만 학급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었다.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은 서서히 익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선생님이 아직은 담임을 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흥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 앎이 생기면 모임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선생님은 모임에 정말로 열심히 참여했다. 학습이며 연수, 세미나 ..... 솔직히 아담꿈에게 약간의 질투가 날 정도였다. 그리고 거의 반년을 모임에 그렇게 참여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임 이전에는 체육과라는 특성답게 그는 남성중심의 세상에 알게 모르게 빠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 역시... 그리고 세상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알면 생각하고 실행했다.

나의 위기의식과 참여

조금씩 두려워졌다. 그가 깨우치는 동안에 난 너무도 안일하게 살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사고를 깨우치지 못해 그와 생각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함께 살기가 힘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후발대로 아담꿈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참여할 때부터 여타의 모임과는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적이면서도 서로를 신랄하게 파헤치고 공부도 많이 했다. 실은 처음에 난 진보된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부적응 학생처럼 굴었다. 애인의 그늘 역시 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생각은 있으되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큰 비중을 아담꿈에 두지는 않았다.

아담꿈은 그런 나를 질책하지 않았다.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항상 감추고 포장하는 나에게 말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꿈의 가장 좋은 분위기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 겉만을 사랑하지 않고 삶의 깊은 상처까지도 감싸주는 마음.....바로 이것이 아담꿈 이다. 그래서 아담꿈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교단일기가 가장 좋다. (실은 게으른 데가 있어서 많이 쓰지 못한게 사실이지만) 학교 안에서의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 속에서 생기는 고민들까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원숙해짐을 느낀다.

다시 생각하는 아이 만나기

그리고 거기서 얻은 편안함과 원숙함으로 아이들을 바라 볼 수 있다면... 아담꿈은 특별히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학급도 하나의 세상이기에 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느낀다.

6. 아담꿈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이은록회원)

- 아담꿈은 식구이다. 하지만 편하지는 않다. 자꾸 질문을 물어오니까? 그리고 날 괴로하게 하여 준다.

아담꿈은 식구이다.

아담꿈은 나에게 현재 어떤 의미인가? 나는 그곳에서 뭘 느끼고 배우는지... 이런 물음을 할 때마다 나는 막상 딱 하니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냥".....의미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이니, 때론 지루하고 하기 싫기도 하지만 그 일상의 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생활 전체 시스템 역시 잘 돌아가지 않게 됐다고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식구니까 나의 짜증, 힘듬, 안일함, 하기 싫음...을 다 받아줄 것 같은... 지금 현재 나에게 아담꿈은 그런 존재다. 하지만 피를 나눈 식구들에게 느끼는 무사안일(?)은 없다. 왜냐면 언제나 나에게 물음을 제기하고 나를 긴장시키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주는 아담꿈

아담꿈을 하면서 언제나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 "교사란 정말 어렵구나. 내가 과연 아이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가르칠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내 스스로 많은 부분에서 수양과 마음가짐이 잘 되지 않았구나" 하는... 참 자학적인 생각일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물론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내 만족적인 생각을 하는 때도 있지만 말이다. 아담꿈을 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지금도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게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다. 학급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물음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학급이란 곳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므로 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가 없다면 결국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담꿈은 내게 말해주고 있다. 아직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스스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급 운영은 결국 나에게 허무감만을 줄 뿐인 것 같다. 그럴 뜻한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학급 운영을 하지만 마음은 풍족해지지 않는다고 할까?

자족하는 교사를 넘어서

아담꿈은 교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써의 자신을 찾는 것이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임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교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따가운 일침으로 또는 무언의 눈빛으로..

작년 한해 정말 무식하게 많은 일들을 벌렸는데 지금 나에겐 남아있는 건 없다. 결국 아이들을 깊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과일 것이다.

모두를 긴장시키기도 하고 모임 속에서 사소한 다툼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 아담꿈 식구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담꿈은 성숙해 가고 있다.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

7. 일상생활과 아담꿈의 관계는 밥이다.(박승미 회원)

- 이제 그저 밥과 같다. 밥의 특징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날마다 먹는다. 질리지도 않는다. 내일도 먹을 것이다. 말하면 이해될까?

지금도 기억하는 첫 만남..

내가 아담꿈을 처음 만난 것은 99년 12월이었다. 아니, 만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라 표현해야겠지? 나도 엄연한 창립 멤버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나는 신규교사로서 1년을 보내고 나름대로 반성과 다음해의 계획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부부교사인 나는 남편이 광주 학생 생활 연구소에서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그 중 학급운영 모임이 있으니 활동해 보자고 권유를 받고 첫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신규교사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일 것이다. 첫 아이들의 학급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나로서는 남편의 권유가 반가워서 선뜻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처음 4명(김록성, 박춘애 t)이 마주 앉아 학급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 자리에서 모임의 이름--아담꿈(아름다운 담임을 꿈꾸는 교사들의 모임)--을 정하고 모임의 여러 가지 기본 이념과 운영 방법등 을 정하였다.

그리고 2주마다 만나는 모임..아담꿈.. 이제 나에게 있어 아담꿈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아담꿈의 준 변화 그 시작은 학급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처음 준 변화는 학급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적 지식을 막연히 기대하였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교사생활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어 힘을 실어주는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다. 학급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었다.

모임에서 식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 아담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과 학교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참 많이 다르다. 여전히 침묵을 강요하고 아이들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다. 아담꿈은 이러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첫 교단에 섰던 가슴 떨림을 기억하게 되는 각성제가 된다.

2탄은 부부 관계의 변화

지난 겨울부터 우리 부부의 문제나 출산, 육아 문제로 내 개인의 생활이 힘들었을 때 모임을 좀 쉴까 생각했었다.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아니 정말 쉬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아담꿈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아담꿈 식구들을 보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난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내가 모임을 포기하고 쉬어 버리면, 학교생활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담꿈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모임을 쉬어도 그것이 진정으로 쉬는 것이 아니고 더욱 내 자신이 힘들어 질 것임을 알기에.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만남에서뿐만 아니라 아담꿈은 우리 부부간의 만남의 방식을 많이 바꾸어 놓는데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다. 아담꿈에서 여성학을 학습한 뒤로 평등한 부부생활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얻으려는 나,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남편.. 일년이 넘어가는 싸움(?)이 이제 끝이 보이려 하고 있다.

개인이 변화할 수 있어던 합의

모임의 원칙적인 합의가 학급운영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신상과 고민을 최우선으로 함께 하자라는 것이었기에 우리 부부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아담꿈의 원칙은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다. 남편에게 받은 메일을 공개해서 약속을 식구들에게 공인 받는다. 그러면 남편은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내가 노리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식구들과 함께 논의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이다.

3탄 시각의 깊이를 만들어

음. 또 아담꿈에 대해서라면.. 아담꿈을 하면서 사물과 구조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지니게 되었다. 하다 못해 영화를 한편 보면서도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려 하곤 한다. 예전에 그냥 의미 없이 보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보려고 노력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나 제도를 구조적,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요즘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전체적인 구조나 제도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조 폐지>건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아담꿈의 밥이다.

일상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어려웠을 때, 내가 힘을 잃어갈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때로는 심심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똑바로 세워야 할 때.....아담꿈이 내 곁에 있다. 아니 내가 아담꿈 속에 있다. 항시 먹는 밥처럼. 특별히 한 두끼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지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생활력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하는 밥처럼..... 이제는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일은 별로 없다. 이미 난 밥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아담꿈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회원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우리 아담꿈 식구들.

식구들이 갑자기 보고싶다. 시댁에 내려오는 바람에 교육기행도 참여하지 못했다. 가끔 별식도 먹어야 하는데. 여름철엔 밥맛이 없으니...

8. 프로그램 속에서 구체적 나의 변화(이겨라회원)

- 내가 아담꿈을 만나온 지가 3년...1999년 12월 즈음이니까 2년, 아니 1년 7개월이다. 꽤 오래한 것 같은데 해수로는 3년이지만 그 시간은 19개월 정도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은 지났고, 9개월이면 어느 정도일까?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학급운영은 나의 이해가 필요하였다. 내 상처를 안아가기 위해서

1999년 12월 첫 담임으로서 상처 입은 마음을 교단일기에 토해내며 나를 발견해가기 시작했다. 외부적 상황의 고단함에서 출발하였지만 가족관계까지 되돌아가며 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급운영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자아와 생활전반에 걸쳐 펼쳐지게 되었다. 2000년 한해동안 필사적으로 썼던 교단일기를 다 모아보니 20페이지가 넘어 한 권의 소책자가 되었을 때는 보이지 않아 막연하던 하루하루 커 가는 의식적인 고민 속의 나를 당당

하게 증거해 주었다.

교사로서 성장 교단일기, 학급운영 계획, 평가

교단일기는 학급운영의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나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힘으로 아이들과 아이들을 둘러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단순히 마음의 위로 수준을 넘어서 삶의 역동성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기억하게 하였다.

매일의 생활의 노력이 헛되이 파편화 되지 않게 고리가 된 것은 방학 후, 전으로 하는 한 학기, 한해의 학급운영 평가와 반성, 계획이었다. 교단일기가 단절된 신변잡기가 아닌 과학적인 실천행위가 되기 위해서 잊고 싶고 들추고 싶지 않다는 그간의 상황을 유혹의 심정을 딛고 다잡으며 최소 3장 최대 10장 넘는 형식의 질문지에 시험 보는 수험생 마냥 써내려 갔다. 이런 결과물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삶을 증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커리는 단정적이기 보다 포괄적이어서 삶의 문제에 상상력을 만들었다.

생활의 변화 발전의 지속성은 어느 순간에 비약하는데 그와 함께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생활에서 닿게된 문제의식의 확인, 의미부여, 객관성을 주었다고나 할까...

99년 겨울 학급운영과 나의 한계성으로 겪고 있던 아픔을 결론처럼 보지 않길 바라며 [물으면 바보야]라는 책으로 여유 있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확인 받았고, 2000년 여름 물길 따라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하던 차에 [나와 너]를 통해 '관계'에 대한 법칙성을 듣고 그동안의 교실, 가정, 사회 등에서 학생,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짚어 해석해보았다. 관계에 대한 의식적인 고민은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에서 시작되었으나 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했다. 반복되는 관계적인 고민과 공허함을 어느 정도의 체념으로 달래고 있었다. 인간, 아니 인간성에 진보라는 것이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나에게 역사에 대한 학습은 매력적이었다.

한국근현대사와 신자유주의, 여성학을 공부하며 귀동냥으로나마 삶의 모순성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볼 수 있었다.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즈음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지언정 단지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아야 함을 깨달았다.

실천적 대안의 무엇일까?

올해 교사 신분으로 살아 온지 3년째다. 초년생 때 새벽6시까지 함께 술 마시며 자신답게 나에게 신경을 써주던 선배교사가 다음해에는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는 서운함과 아쉬움을 눈빛으로 보내더니 올해에는 나에게 날카로워 졌다며 분위기 안에서 책임감으로 그럴 것이라며 이해한다. 선배 말을 실마리로 나를 들여다보자면 학교에서 나는 첫해에는 수용적이었고 형식상 밝았다. 아담꿈과 만남을 지속하며 내 삶의 역사성과 의식적인 노력을 시

작하기 위해 몰두했으므로 외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학교 생활 속에선 형식만 유지하고 침체된 듯 하였고, 올해에는 학교생활에서의 내용적인 실천성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아담꿈의 학습도 학교붕괴와 외국의 대안학교,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신자유주의, 교사론으로 들어가고 있다. 학교에서 실행되는 정책과 관계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반항의 수준이다. 앞으로도 논리적인 대응과 민첩한 행동을 꿈꾸며 삶을 공유하고 학습할 것이다.

나를 찾아서 가는 연어 살이

아담꿈의 살이는 꼭 연어 같다. 저마다 상처의 아픔으로 모여 만남을 약처럼 바르며, 막연하고 두렵던 우리의 현실의 물살을 헤쳐 가는 것이 곧 나의 본성을 찾아 삶의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해 가는 것이 되는 것 같다. 바다에서 살고 있던 연어가 배가 아파 흐름을 거슬러 사냥꾼의 위협과 바닥의 거친돌들에 부딪히며 죽음의 고비를 넘어 넘어 옛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것이 머리로 만의 인식을 넘어선 본능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담꿈과 본능으로 살고 싶다.

9.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담꿈(이수경회원)

- 수경회원은 아담꿈에 전부를 주고 있습니다. 삶의 그늘을 공개하는 용기가 우리가 가장 바라는 연대입니다. 그곳에서 희망을 만들 수 있기에.

어렵게 합격한 임용고시

98년 겨울 임용고시 예비소집 날이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유난히 길어 보이던 줄. 난 그 산술적 숫자에 한참이나 주눅들었었다. 그런데 극한의 절망과 행복은 통한다던가? 우여곡절 끝에 난 붙었다. 이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2년이 지났다. 누구나 그렇듯 아니 특히 나는 별다른 준비 없이 교직에 들어왔다. 시험을 위한 준비는 했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에 대해 별 무게중심을 두지 안았었다.

후발 회원으로 어설픔

교사가 된 첫 해 그저 맹목적인 열정과 자신감에 들떠 있었다. 충분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닥쳐보니 부딪히고 가로막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늬는 새차로되 아직 품질검사를 마치지 않아 불안한 자동차 꼴, 바로 그것이었다. 풀리지 않는 고민들, 답답한 현실의 목마름을 해결할 비상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만나게 된 것이 '아름다운 담임을 꿈꾸는 모임' (이하 아담꿈)

이었다. 초기엔 물에 기름을 탄 것처럼 이질감을 느꼈다. 생소한 분위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주제들, 구성원들과의 서먹함으로 꽤나 오랫동안 그 주변을 맴돌았다. 모임의 논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난 뭔가 눈에 보이는 뾰족한 답을 원했던 터라 마음에 차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아담꿈 선생님들의 배려와 기다림으로 그 원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다. 내 자신을 열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손길은 당연히 느끼지 못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기 보다 뭔가 뚜렷한 결과를 얻으려 했던 나의 얄팍함과 조바심이 문제였다.

교단일기로 처음 진지한 말문을 열며

아담꿈은 계획, 의도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삶 나누기를 한다. 학급운영담론, 주제별 집중학습, 교단일기, 교육기행, 수시로 있는 밥과 술 나누기 등. 그 중 삶 나누기의 한 방법으로서 교단일기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막상 얼굴을 맞대면 말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글로써 표현할 때는 더욱 솔직해질 수 있다. 교단 일기를 쓰게 되면 우선 자신의 '마음 읽기', '삶 읽기' 가 되고, 자연스럽게 '삶 나누기' 로 이어진다. 글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던가? 교단일기는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 때마다 회원들 모두 각자의 것을 발표한다.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서로의 의견과 느낌을 나누며, 조언과 충고도 아끼지 않는다. 교단일기는 형식과 내용의 제한 없이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깊숙한 부분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치부까지 담아 낼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담꿈의 건강함, 회원들간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에 해답을 주기보다 생각하는 방법, 살아가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심어 준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과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도움을 받는다. 그저 이런 것들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서로에게 도우미가 된다.

고구마 자랑..

최근 들어 난 아담꿈에서 고구마로 통한다. 그 이유는 내가 쓴 교단일기 때문이다. [난 어렸을 때부터 오직 선생님이 되길 꿈꾸었어. 나에 대한 다른 가능성과 여지에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단 하나만 바라고 살아 왔던 거야. 별 생각 없이 꿈을 너무나 일찍 정해 버렸어. 그 때문에 큰 방황은 안 했는지 몰라. 하지만 다르게 보면 참 어리석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한 길만 보고 왔으니. 그래서 난 세상 경험이 참 부족한 것 같아. 현재도 교사라는 틀 안에서 세상의 티끌만 보게 되거든. 그 세상이라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그것이 좋은 점도 있으나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아. 나의 칡넝쿨처럼 질긴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른 개연성들을 무시해 버리거든. 난 콩인 줄 알고 줄기에 달린 콩만 땄는데, 알고 보니 고구마였어. 고구마는 본래 깊이 깊이 이곳 저곳을 파보아야 결실을 얻을 수 있잖아. 이

제라도 내가 찾지 못한 고구마를 찾아야겠어. 괜찮겠지?]

이후로 난 '어이! 고구마 잘 있었어.' '고구마는 잘 큽니까? ' 라는 식으로 안부 인사를 자주 받는다. 이 것은 단순히 안부 인사가 아니라 '나의 평생의 고구마 찾기' 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애정이 담겨있다. 이를 알기에 난 '고구마' 란 애칭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 다행스럽게 고구마를 찾으면 좋지만, 고구마를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찾고 나니 처음대로 단순한 콩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더 어른이 될 것 같다. 아담꿈도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므로.

아담꿈의 생명력

학교, 개인 생활에 젖다 보면 모임에 소홀해 질 때도 많다. 또 스스로를 '정신병자'라 할 만큼 다양한 개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충돌할 때도 왜 없겠는가? 또한 모임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자책감으로 스스로 위축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담꿈을 찾는 뭔가가 있다. 대부분의 모임이란 게 단순한 친목위주라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아담꿈은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 더 나아가 공동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이것이 아담꿈이 부담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나, 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교직 생활에 다시 자신을 추스르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나처럼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경우엔 아담꿈과 인생의 동행을 통해 한 걸음 쉬면서 호흡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 마디마디 굳게 박힌 편협한 주관성으로 뭉친 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아담꿈.

아담꿈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다.

萬波息笛

김 승 희

더불어 살면서도
아닌 것 같이
외따로 살면서도
더불음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간격을 지키면서 외롭지 않게
외롭지 않으면서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두 개의 대나무가 묶이어 있다.
서로간에 기댐이 없기에
이음과 이음 사이엔
투명한 빈 자리가 생기지
그 빈 자리에서만
불멸의 금빛 음악이 태어난다.

- 이하생략 -

도우미 : 처음에는 회원은 후배 교사로 가르쳐야할 대상이었다.
다음은 선배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부지 반란범이었다.
전쟁...
가끔 난 여전히 그 왕좌에 향수를 지니고 있어 간헐적인 전투가 있다.
하지만 대세는 왕좌에서 밀려나는 방향이다.
그러나 어찌 그들이 알리..행복한 하야임을
이제는 그들은 친구들이다. 사랑하고 만나고 싸우고 다투는

권위를 사용하였지만 한편으로 무너질 준비를 하였다.
완벽보다 노력하는 삶을 보이고자 하였다.
환상보다는 아픔으로 같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난 무너졌다.
하지만 자유롭다.

대전학생생활연구회 '넝쿨' 상반기 모임 내용 및 평가

2000년 평가를 토대로 한 2001년 모임 계획

- 학급운영에 대한 이해를 인권을 중심으로 공부하였던 2000년도를 평가
- 학생생활연구실천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주제별 연구 발표를 준비
- 2001년 연구 주제를 청소년 문화 - 성·매체·언어 등-로 정함
- 2학기는 참교육실천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참교육실천보고대회에 참가하기로 함

모임의 객관적 상황

- 현재 8명 (7월 신규 1명 포함)
- 아줌마 세력이 휴면 및 휴직
- 교직경력이 1-4년차
- 열의는 굉장하다.
- 모임 주체(리더) 부재
- 지부의 참실에 대한 고민 부족하여 행·재정적 지원 부족

2001년 상반기 모임 내용

- 2월 : 상반기 연수(광주 일대), 상반기 계획 수립과 술(?)과의 친분쌓기
- 3~4월 : 계기별 학급 행사 점검
- 5월~7월 : 청소년 문화 이해

세부 내용1 - 계기별 학급 행사 준비 발표

- 3월 14일 : 학급 조직 구성하기(반장 선거, 두레 구성, 급훈, 조·종례)
  반장선거에 대한 문제점 인식 공유, 신규선생님 5명 가입
- 3월 21일 : 환경미화
  정례화 된 환경미화의 준비 논의
- 3월 28일 :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직접 아이들과 할수 있는 내용을 직접 해 봄
- 4월 5일 : 아유회
  단련과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 보문산에 처녀들만의 나들이
- 4월 18일 : 소풍·수학여행
  소풍과 수학여행시 준비사항, 수학여행에 대한 테마별 여행으로 대체하자는 대안 제시
- 5월 초 : 3.8, 4.19, 5.1, 5.18 등의 내용 공유

세부내용 - 청소년 문화 이해(저자:조한혜정)

- 5월 16일 :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동의, 참고 도서 및 영역 정하기
- 5월 30일 : 청소년 문화 읽기
- 6월 13일 :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2. 학교라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이탈하는 아이들
- 6월 20일 :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3. 애 지금 청소년을 이야기하는가
- 6월 27일 :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학교」 6. 성역할 교육과 남녀 공학
- 7월 4일, 11일 : 아이들 만나면서 잘못 쓴 말 들 발표하기
  광주 성평등 교육 연수 자료집 공부
- 7월 11일 ~ 7월 중순 : 여름 학급운영 자주 연수 준비

상반기 모임 평가

- 모임의 정례화와 모임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려는 노력은 나름대로 있었다.
- 그러나 3년째 답습하는 계기별 학급행사 나눔은 아이들 제대로 만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 책을 읽은 뒤의 토의는 책의 내용을 뛰어넘지 못하는 독서토론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없으니 만남의 수준은 친목 도모 수준이었다.
- 2학기 세부 연구과제에 대한 고민을 방중에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11월 참교육실천

보고대회까지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다.

- 한 학교에 회원이 몰려(대전여정보고 7명) 회원관리가 잘되지 않았다.
- 김은희 선생님의 열성이 성과물이다. 조합에도 가입하고.
- 매학기 연수 준비에 많은 시간을 집중하여 자체 역량 강화인 연구회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 기간이 짧았다.

참고 - 2001 여름 학급운영 자주 연수 평가

1)준비 단계

계획 단계에서는 직무연수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으나 교육청 신청 기간 을 놓치는 바람에 자주 연수로 바꾸기로 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었으 나 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준비가 늦어졌다.

2)연수 내용

①학급운영 - 성인숙 선생님
②집단상담 - 윤철수 사회사업가
③청소년 문화 이해와 생활지도 - 정진규 선생님

3)연수 인원 – 21명

계획했던 인원은 40명이었으나 홍보 부족, 직무연수가 아닌 자주연수이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반 수 정도로 행사를 치르게 됨. 연수 진행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인원이었음

4)연수 평가

① 넝쿨 자체 평가 - 준비 미흡, 역할에 대한 책임감 부족, 홍보 미흡, 인원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서 좋았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시간 안배가 적절하지 못했고 강사 한 분이 하루 종일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② 학급운영연수 참가 선생님들 평가 - 모둠별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고 강의 내용에도 대체적으로 만족함. 시간 안배가 적절치 못했다, 하루에 하나의 주제로 강의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등등의 평가가 있었다.

③ 상담 연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④ 회원이 한명 늘었다.(안재영 선생님)

'가온샘',익산 교사 학급운영 동아리

권익산

해마다 찾아오는 담임이지만 해마다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도 담임이다. 학기초에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지만 어느 사이 아이들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도 담임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담임을 맡지 못하면 선생이 아닌 것 같고 학교가 꼭 남의 집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2년전 이런 고민을 하던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면서 만들어진 것이 가온샘이다. 가온샘은 먼저 고민을 하고 있던 이리중학교 강유희 선생님의 제의로 시작되어 현재는 익산의 5개 학교에서 모인 7명의 선생님들이 격주로 모여 학급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 얘기를 나누고 공동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모임의 성격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연구나 실천 조직이라기 보다는 알음알음으로 모인 교사 동아리라고 하는 편이 적합할 것 같다. 현재 전교조 익산지회 참실위 산하 교사 동아리로 조직되어 있으며 익산 청소년 문화제 등 지회 행사에도 사안에 따라 결합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1월 : 한빛고등학교 방문, 전국 학생생활 연구 모임 연수 참가
2월 : 전북 청소년 종합 연구소 주최 학급 운영 강좌 참여

학급 운영 연간 계획 세우기
3월 : 학기초 학급 운영 점검 및 수정
8월 : 3개 학교 공동 학급 야영
10월 : 익산 지회 주최 익산 청소년 문화제 준비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학기중에는 공동으로 계기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실시하였고, 학생의 날을 맞아 각 학교의 교칙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모색해 보았으나 각 학교에서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공동 학급 야영의 경우 회원 중 한번도 학급 야영을 실시해 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함께 준비하게 되었는데, 처음 우려와는 달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형 동생처럼 돌봐주고 따라주어 학급 야영에서 느낄 수 없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올해에는 주로 청소년 문화 읽기라는 주제로 익산의 청소년 문화 실태 조사와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은 서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있지만 모임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나 실천 방향에 대한 전망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학급운영모임 운영의 어려움

수도권 학생생활 연구회 학급운영 모임
임정근 · 서울 한양공고

1. 학급운영 모임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나타난 혼돈

①성격규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나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

학급운영 모임의 성격은 모임의 결성당시 회원들의 성격에 대한 공유에서부터 규정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 규정력은 실천력을 통해서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규정력이라는 것이 모든 회원이 두루 공유하고 실천을 통해서 담보되지 못한다면 모임의 성격으로 정착되지 못할뿐더러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탬이 되지 못한다.

모임의 주체는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 모두가 되어야 하며 회원 모두가 모임의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모임의 성격을 공유하고 목적의식적인 실천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임의 리더나 특정인의 의도와 목적이 모임 전체와 공유되지 않았다면 모임은 자칫 공중에 떠버리거나 각개약진을 할 수밖에 없다.

②리더의 목적의식이 치열하지 못했다.

수도권 학급운영 모임은 처음에 출발할 때 전략적인 목표로 공동체 교육에 기여하는 학

급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학급운영의 전략적 방향을 밝혀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전제한 공유정도의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모임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 공동체적 학급운영을 위한 학급 분석틀을 마련하고 그 분석 틀에 맞추어 학급을 분석하는 것은 학년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분석 틀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년초를 넘겨버리면서 모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감각적인 진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분석틀에 맞는 학급운영을 계획하는 일은 학급운영의 자기 관성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틀에 매달려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일까지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전략적으로 학급운영의 방법론과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거창한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리더가 학급운영 팀과 교실사회학 모임을 같이 하면서 나타난 두 모임의 성격을 혼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너무 앞서 나갔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2. 모임 운영에 있어서 견지해야할 원칙의 혼돈

학급운영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견지해야할 원칙에 대해서는 접어두더라도 가장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학급운영 모임은 다른 연구 모임과 성격이 다르다. 연구 모임은 연구와 실천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학급운영 모임은 실천을 전제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천의 걸림돌은 대부분 교사 자신에게 있으며, 교사의 질적 변화와 실천의 질적 변화는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의 자기 변화의 지점에 대한 인식과 인간적인 만남과 공동체적 품성을 모임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점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한 것 같다.

회원들의 인간적인 변화와 회원 상호간의 끈끈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모임은 비록 참여 회원이 많더라도 모임과 회원 각자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회원은 문제를 방치하거나 모임을 통하여 힘을 얻지 못하여 어려움을 얻지 못한다. 수도권 학급운영모임이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다.

모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 하기보다는 모임을 통해서 학급운영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려는 목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이 중간에 문제의식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자기 문제를 깨닫고 번거로운 모임보다는 각자 현장에 매몰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모두가 같이 느끼는 어려움을 같이 풀지 못하고 개별화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 문제를 솔직한 품성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의 개방적인 문화와 인간적인 문제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수도권 학급운영 모임은 성격규정에서 학급운영모임이라기 보다는 전략적인 연구모임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끼리 일반적인 학급운영모임과 전략적 연구모임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회원들의 인간적인 관계와 모임의 문화, 회원들의 문제점을 모임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리더가 교실사회학 모임과 학급운영 모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두 모임을 혼동한 데서 비롯되기도 했다. 또한 인간관계로 풀어나가는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매달리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적이고 헌신적인 만남보다는 학급운영 기술에 매달리는 경향으로 경도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멀리 있지 않고 간단하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학급운영 모임을 통해서 학급운영 기술을 배우겠다거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비주체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모임의 성원들이 공동체적 품성을 만들어가는 모임을 세워야 하겠다. 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서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참답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모임의 기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지 않으면 학급운영 모임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변화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짧은 시간에 뭔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조급주의 또한 극복해야 한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포럼을 단기간에 실시한다고 모두 치열하게 자기 변화의 지점을 느끼는 것도 아니며, 자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끈기와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사론 ; '말단 관리'에서 '지역의 교사'로 거듭나기

배이상헌 · 광주학생생활연구회

가. 한국사회 근대 공교육의 형성의 문제

① 한국의 공교육은 지방자치가 없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져왔으며,

② 해방 이후 국가형성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자주' '식민 잔재 청산'보다는 '근대화' '경제발전'의 논리를 중심으로 근대국가체제를 만들어왔다.

③ 교육이데올로기 또한 항일투쟁의 민족적 논리보다는 개인주의적 '입신양명'의 실용적 맥락에서 기능적 교양인을 양성(=국가 부흥)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곧 천민적 자본주의의 臣民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④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지역의 합의를 갖지 못하였으며, 또 그러한 자주적 교육론은 이승만 파시즘 체제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⑤ 프랑스나 유럽의 공교육이 시민혁명의 성과와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자각된 노동운동의 요구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음에 비하여, 한국사회의 공교육은 투쟁의 산물도 아니었으며(봉건적 신분상승의 통로), 자주적 교육주권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야말로 근대국가의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며(교육입국), 근대 공교육이 오히려 봉건적 계급체제의 탄력적 유연성으로 개량된 것에 불과하였다.

나. 한국사회 공교육 형성과 교사문화

① 학교를 둘러싼 시민사회(지역사회)의 합의가 부재하다.

② 과잉된 교육열은 신분상승을 위한 투자, 기능적 실용성의 습득에 머물렀지,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감시의 노력으로 다가서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학교는 더욱 패쇄적이고, 그 문턱은 높아만 갔다.)

③ 교사 양성은 도구적 기능인의 양성체제로 발전했으며, 중앙정부가 전국의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모습은 거대시스템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④ 교육부-교육청(광역/구,군단위)-학교의 수직적 관리행정 시스템은 중앙정부 차원의 산출효과를 중시하는 교육행정이 되었으며, 지방자치와 분리된 교육행정시스템은 몰가치적, 정치 종속적, 관료적 성격으로 경직되었다.

⑤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의 민원이나, 정치적 요구를 상대하는 것은 교육관료들의 몫이 되었으며, 그나마도 폭압적 통치체제는 정치적 맥락의 교육주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으로 일관하였기에 교육관료들이 고민할 영역도 아니었다.

⑥ 학생, 학부모의 교육주권은 존중보다는 배제의 대상이었으며, 교무실문화 또한 그렇게 학생,학부모 집단을 상대하는 것이 순조로왔다.

⑦ 개별 교사는 교육주권을 부르짖는 목소리와 만나기도 어려웠으며, 스스로의 교육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예속적 처지에서 교육에 대한 주체적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집단화하며, 지역사회에 유통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다. 말단 관리로서 교사

① 교사는 어느덧 교육자이기보다는 말단관리가 되었다. 인권 없고, 교육주권 없는 학생들을 수용소에 유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집행하는 하급 관리가 되었다.

② 학생을 주체, 교육의 상대로 바라보지 않는 교육론에서 교사는 프로그램 집행자 또는 학생들의 수용관리자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③ 학급운영에서 교사의 위치는 역시 교육자이기보다는 관리자이다. 학급통솔이라는 익숙한 용어도 결국 교육이라기보다는 관리라는 맥락에서 기능한다.

④ 교사는 이제 교육자로서 자기 성취보다는 관리자로서 기능적 우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은 어느덧 관리의 대상이며, 그 평가는 관료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을 안다.

⑤ 모든 행정문서는 학생들을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개체로 간주하기보다는 관리의 맥락에서 통제, 지도되어야 할 집합적 객체가 되었다.

⑥ 학부모와 관계 또한 지속적 나눔의 대상이 아닌 일회적 민원처리 상대로 전락하였으며, 일방적 후원, 기부자로 규정하였다.

⑦ 교사의 교육행위는 정치적 과정에서 분리하여, 혼자만의 작업이 되었으며, 이는 교육행위가 지극히 기술적 작업으로 전락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사상이나 입장표현도 단순한 '지사(志士)'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다.

라. 교육자치와 교육개혁, 그리고 교사운동

① 현장에서 교육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의 교육주권이 없고서는 교육개혁이란 전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② 교육개혁은 중앙정부 주도의 전시(展示)적 교육개혁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되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 등의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③ 지역(시민)사회의 교육주권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교사의 교육권 쟁취 투쟁은 관료들과의 단선적 대립이 된다. 또한 재갈 물린 지역사회의 교육주권은 중앙정부 및 지역교육청의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에 머무른다.

④ 교육주권이 없는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교사의 참교육은 교사만의 참교육으로 귀결되기 쉬우며, 이 또한 '전시(展示)적 딜레마'를 유발하고 만다. 더 나아가 교사의 실천을 관념적인 낭만성으로 치닫게 하며, 이는 다시 학생에게 제한된 참여, 제한된 실천에 머무르게 하는 등 학생을 관념적 존재로 한계 짓는다.

⑤ 현 시기 교사운동은 교사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청산운동을 벌여야 하며, 이는 다시 교사의 자정운동에 대한 지도력의 문제를 낳는다. 자정운동에 대한 힘있는 지도력이 없이는 교사 주체의 교육개혁 또한 공허한 공염불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⑥ 교사의 자정운동은 제도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교사들이 제도의 주체로 설 수 있음을 명시적 선언하는 것이다. 행정지침보다 학교단위 협의를 중시하는 것, 교육청보다는 지역사회와 의논하는 것, 교장선출·보직제 요구와 연계하여 학교단위 민주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출보직제가 단지 인사상의 혁신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정운동, 교육개혁의 중심적 테마임을 내외에 확인하는 것이다.

⑦ 노동자로서 지역 주민은 자신의 일터를 벗어나서는 그저 하나의 소비자로서 삶만 존중받는다.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단지 일회적 정치행위자에 불과하며, 교육부문의 참여는 더더욱 어떤 지위와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편이다. 교육개혁은 교육을 중심으로하는 지역공동체의 건설, 지역공동체의 운영에 있어 '교육부문의 의사소통'의 비중을 확대하기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⑧ 학교는 건물이나, 행정조직이 아닌 '공동체'의 자리이다. 지역 주민의 교육상담소이며, 지역 주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축제가 상상되는 곳이다.

⑨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역 단위 학교현장에 대한 참여 및 감시틀의 형성은 관료적 학교의 구태를 일신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교육실천에 대한 지역의 합의와 신뢰의 형성과정을 요구한다.

⑩ 지역의 교육시민운동 역량은 낮은 수준의 비리척결투쟁, 참여운동 등에 국한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회적 연대투쟁이 아닌, 교육시민운동의 전문조직이 필요하며, 전문활동가, 전문적 정책개발이 요청된다.

지역 교육청의 관료조직에 참여하기,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교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요구투쟁, 청소년인권 및 교육정책에 대해 시민 교선하기 등이 요청된다.

마. 국민의 교육주권회복 ; 지역의 교사로 거듭나기

① 공교육은 교사의 '노동'을 통해 그 이상을 구현한다. 이때 교사의 노동은 전체 공교육의 구조화된 결정물의 단순한 부분일 수 없다. 교사의 노동은 공교육이라는 구조물의 개별 구조물이면서도, 한편 전체 공교육의 형태(이념과 방법원리, 과정)를 재구성시켜가는 역동적 부분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노동'은 단위 학교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한국사회의 전체 공교육에서든 총체적 구조와 역동적으로 상생하는 노동인 것이다.

② 교사는 노동자이다. 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을 행정적으로 최종 완료하는 행정공무원의 노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사의 노동은 끊임없이 자신의 학부모와, 자신의 지역사회와 '인간관'과 '사회의 미래상'에 대해 교육행위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교사의 교육행위는 결코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된다.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실천의 특수성 또한 어느 면에서 제한적이다. 즉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행위는 독단적 범위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신뢰와 이해, 공동실천을 촉진하는 의사소통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

④ 교사는 교육자치의 대상이 아니며, 교육자치의 구현자에 가깝다. 학급단위에서 교사의 학부모사업은 재조명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에서 교사직과 학부모의 의사소통은 일상적이어야 한다.

-- 교사의 1년 학급운영 계획 설명회, 학급활동 신문, 학부모 훈화(명예교사), 학급학생회의 발표회, 정기적인 담임교사와 간담회 및 가정방문, 학교 차원의 학부모의 자녀교육 사례 발표회

⑤ 교사의 양성과정에서부터 지역의 교사로서 교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사의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려는 지역운동가의 품성, 주민들 대하는 태도는 결코 교사의 품성이나 행동양식과 거리가 멀지 않다. 교사의 실천은 한편으로는 학부모나 학생의 교육주권을 각성시키고, 함께 협조하는 만남과 나눔의 과정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 정치인과 더불어 교육자는 노동자들의 삶의 연대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자이다.

⑦ 현재 시점에서 교사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교육활동에 관심을 두고, 적절한 연대를 구상해야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 구청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폭넓은 관점으로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교사는 공교육의 문제, 학교운영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결합하여 표현하고, 고백하며 제안해야 한다. 서로의 처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모색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⑨ 교사는 아이들의 학부모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이 주인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존재이다. 학부모의 삶은 아이들의 삶이며, 노동자의 삶이다.

⑩ 자기 집 이야기를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의 사사로운 가족적 관점의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국민적 책임성과 지역에서의 민주성에 대해 교사들이 관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없고서는 결코 교사가 지역의 교사로 되돌아 갈 수 없다.

⑪ 지역은 진보적 사회자원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다. 학교문제를 학교 내에서만 풀려고 하는 고립적 관점을 벗어나서, 지역의 다른 학교 교사와 연대하고, 지역 주민과 연대하려는 연대적 관점, 장기적이고 입체적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내부 역량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운동 역량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요구와 활용이 필요하다.

바. 구체적 사례 및 제안

① 97년 충북 옥천의 김성장 교사가 보충수업폐지에 관련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을 두고, 단양으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해 지역민이 단결하여 교육청을 압박하고, 발령을 되돌리게 한 것은 현재 공교육의 교사상에 있어서 좋은 귀감이며, 바람직한 사례이다.

② 90년대 중반 비리로 얼룩진 인천 선인재단과 투쟁 사례

③ 안양, 성남, 부천, 고양 지역의 고교 평준화 운동 사례

④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교사들의 공동선언, 더 나아가 지역현안에 대한 교사들의 선언(환경 및 지역의 부패사례에 대해)

⑤ 광주지역 중학교 교복공동구매운동의 사례

⑥ 영어공용화 지구 제정 반대운동

⑦ 국민과 함께 하는 단협투쟁

⑧ 서울교육포럼, 광주교육시민포럼

⑨ 충남 서산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의 사례

⑩ 개혁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교육의 교사들이 지닌 교사상은 이미 개혁의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 점점 드러날 것이다. 교사의 자정운동은 당면의 과제이면서도 아울러 교육개혁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 공교육을 진정 공교육답게, 국민의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방향을 찾아서 뜻있는 교사들의 목적의식적 참여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로서 교사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교사는 무슨 소리인가? -라며 의아해하는 이도 있겠지만,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은 곧 자본의 논리, 국가의 논리가 아닌 민중의 논리, 민주의 논리에서 교육자의 삶이 구성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니 '지역의 교사'는 이를 구체화하는 이야기인 것이다.